

충남 문화

2023 No.28

Chungnam
Cultural Magazine





문화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30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충남 문화

2023 No.28

Chungnam
Cultural Magazine





Contents

지방문화원 소식

- 8 공주문화원 지역발전 동력의 원천 ‘2023 우리고장알기 충남학(공주학)’ 성료
- 논산문화원 시낭송날개달다 동아리 ‘찾아가는 詩콘서트’ 인기 짱!
- 서천문화원 화합과 단합의 장, 2023 서천단오제
- 14 청양문화원 청양문화원 인호빈 원장 재선
- 예산문화원 핫플레이스! 예산시장 중심에 있는 예산시네마의 오늘
- 태안문화원 2023 범군민 중앙대제 ‘전통 민속놀이 화합한마당’

문화예술동아리

- 22 천안동남구문화원 ‘빈틈없이 아무진 사람’ 모도리 동아리
- 천안서북구문화원 빛나는 하루에 아트를 더하다, 좋은사람들 밴드
- 온양문화원 너와 내가 함께 있어 밝은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You and Me Sun 우쿨렐레 동아리』
- 28 서산문화원 내 삶의 한쪽의 그림, 그림 산책동아리
- 논산문화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비단강문학회
- 서천문화원 글꽃, 글향기, 글맛 서천캘리연합회
- 태안문화원 아이들의 꿈의 숲, 상상구름판

문화원 이야기

- 38 천안동남구문화원 천안 시민의 안녕과 전통 민속놀이 계승발전을 위한 화전놀이 축제
- 천안서북구문화원 함께 걸어요 함께 즐겨요
- 온양문화원 2023 아산천안행정협의회 협약사업(문화교류)
- 서산문화원 “함께해요 아산 플러스 천안” 문화교류 행사 가져....
- 46 서산문화원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우리동네 뉴스
- 논산문화원 논산 단오놀이
- 당진문화원 ‘전통문화는 지속 전승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유산’
- 2023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한마당
- 금산문화원 비석제 사제동행
- 금산문화원 금산천으로 그들이 나온 금산문화원 회원들
- 서천문화원 “한산모시짜기 배워봅시다” 2023 한산모시문화제 한산모시학교



- 56** 청양문화원 전국 최대 장승공원에서 열리는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소원 들어주는 장승 만나러 왔슈~”
 홍성문화원 달아 달아 밝은 달아 ~ 한 해의 평운을 기원하며
 예산문화원 홍예공원 속 풍익상회

충남의 구석구석 / 풍경에의 유혹

- 64** 천안동남구문화원 태학산 자연휴양림
 천안서북구문화원 천호지, 버스커버스커 <꽃송이가> 속 천안
 공주문화원 순교자들의 기록과 기억을 남긴 여운을 주는 곳
 - 천주교황새바위 순교성지
 보령문화원 바다가 보이는 찻집 - 순교 신앙 정신을 생각하며
75 온양문화원 아산의 아름다운 사찰 봉곡사
 논산문화원 강경옥녀봉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관광의 명소)
 당진문화원 ‘인생샷’ 핫플레이스 장고항 노적봉과 해식동굴
 서천문화원 서천 치유의 숲
85 홍성문화원 새로운 관광명소 남당항
 태안문화원 자연인이 가꾼 자연, 천리포수목원

향토문화관련 논문 및 기고

- 91** 보령문화원 관찰사 신억 영세불망비는 어디로 갔는가?
 예산문화원 통영을 다녀와서

문화원 발간 책자 소개

- 99** 논산문화원 논산의 교육발전사

충남연합회 사업 및 활동

- 100** 충남문화원연합회 2023 상반기

창작과 향유
공감과 확산
...
그 매개자로서

상상만 해도 즐거운 문화생활



“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속도의 시대,
새롭게 다가서는 각오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통합적인 감성으로서의 문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

구태를 벗고 새로운 문화마인드로 무장해야



충남문화원연합회 회장
이종석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회의 양극화와 생태적 위기, 효율과 형평이 충돌하는 불균등한 사회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열되어 있는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 충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틀을 과감히 벗고 정서적, 정의적 잠재력을 함께 지닌 문화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생태적이며 인성적인 우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새롭게 다가서는 각오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각종 미디어가 난무하는 이 사회에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물화 되고 남발되는 기호에 피동적으로 묻혀 있던 인간 내면의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에 녹아 있는 언어 이전의 언어를 들어야 합니다. 특히나 인성교육, 감성교육이 전반적 쇠퇴를 보이고 있는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 다중적이고 통합적인 감성으로서의 문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이제 문화가 충남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도민들의 일상적 삶 속으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도시 충남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문화의 창조와 생산, 매개, 수용과 소비라는 점에서 그 고리들이 어떻게 구축되고, 문화교육을 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역의 주체적 역량과 지혜가 결집하여 슬기롭게 해결된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충남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도와 모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 view through a traditional Korean wooden window looking out onto a courtyard with a white wall and traditional buildings. The scene is bright and slightly blurred, with a wooden frame on the left and a circular metal ring handle.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image.

문화로 빛나는 충남,
문화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지방문화원소식

공주문화원

논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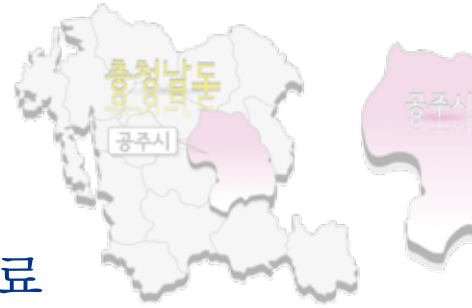
서천문화원

청양문화원

예산문화원

태안문화원





지역발전 동력의 원천 '2023 우리고장알기 충남학(공주학)'성료



공주문화원(원장 이일주)은 지난 5월 11일 (목) 국립공주박물관에서 2023 충남학(공주학) 교육프로그램 종강식을 가졌다.

충남학(공주학) 프로그램은 지역정체성을 탐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적 소양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 4일(화)

부터 5월 11일(목)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한 이번 학기 프로그램은 총 12회로 이론 강좌 10회, 지역답사 2회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번 강의는 본원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중동에 위치한 공주시청년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종강식은 충청권역 수장고 관람과 한수 국립공주박물관장의 강의로 국립공주박물관



에서 진행됐다.

이밖에 주요 강의로는 최석원 전 공주대학교 총장이자 명화장학회 이사장의 ‘한국의 명산, 계룡산’, 이준원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공주의 혈맥’, 민정희 충청남도역사박물관장의 ‘충남 소재 태실의 역사, 문화적 가치’ 등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강하류(익산, 군산, 서천), 고창의 지역답사 2회가 있다. 특별히, 올

해는 지역학 비중을 늘려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미래비전의 숙지(熟知)는 지역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수강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화원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자긍심이 고취되었길 바란다.”며 “지역사 비중을 높이고 지역학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낭송날개달다 동아리 ‘찾아가는 詩콘서트’ 인기 짱!



논산문화원 동아리 ‘시낭송날개달다’는 6월 16일, 연무노인대학에서 詩콘서트를 개최했다. ‘건강하고 즐거운 행복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인생 詩에 답다’란 주제로 강현숙 총무의 사회로 진행했다. 식전공연은 전통연희단 도드리가 신명나는 사물놀이로 흥겨움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어서 회원들은 유명한 시들을 낭송해 감동을 선사했다. 시에 맞는 화려한 의상과 소품 등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었다. 관객과 가

장 공감이가 되는 시극 ‘부모’를 선보여 큰 울림을 주었다. 기타 연주와 노래와 색소폰 연주, 건강 관련 강의는 큰 인기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이침 전문 봉사단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객석과의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이 시 낭송도 해보고, 퀴즈 등을 통해 즉석에서 푸짐한 선물까지 제공해 웃음꽃이 만발했다. 어



르신들을 위해 음악에 맞춰 라인댄스를 펼쳐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석자 모두와 노래를 함께 부르며 막을 내렸다. 어르신들에게 인기 짱이 된 이번 詩콘서트는 동아리 회원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시낭송날개달다 동아리는 2019년 10여 명의 회원을 결성하여 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시 낭송으로 시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시 낭송과 시극 등을 꾸준히 연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재능을 기부로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화합과 단합의 장, 2023 서천단오제



일명 수릿날, 천중절이라고도 하는 단오는 1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인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5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절은 농경시대의 중요한 화합과 단합의 장이었다.

인간은 협력할 줄 아는 동물이었다는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서 보듯이 농경과 수렵은 인간의 협력으로 발전해왔다. 단오절의 놀이는 품앗이와 두레의 성격도 겸하여 있어 칠석, 백중과 함께 농사의 힘든 노동력을 위로하였다. 상전과 머슴의 지위고하 없이 하루를 쉬고 먹고 마시며 민속놀이를 통해 단합하였다.

선조들의 명절은 단오를 시작으로 칠석을 거쳐, 여름의 무더위와 노동을 끝맺는 백중날로 이어진다. 백중날은 호미나 삼을 씻으며, 한해의 농사를 마감하는 절기의 끝자락으로, 일꾼들의 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오가 여자들의 절기였다면 백중은 남자들의 절기인 것이다.

서천문화원(원장 최명규)은 6월 22일 단오를 맞이하여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천 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서천단오제를 개최하였다.

지역의 유교적 전통을 알리는 서천 지역 내 향교(서천·비인·한산향교) 유림분들의 단오제례를 필두로 개최식, 전통문화와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옷놀이 대회가 함께 열렸다. 이날 단오제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행사로 전통문화 체험 부스(창포물 머리감기·발담그기, 단오선 만들기, 장명루 만들기, 창포 비누 만들기, 전통 탈 만들기,





수리취떡 만들기, 민화 그리기, 나만의 행운부적 만들기, 소원지 쓰기, 천연 염색하기)와 민속놀이 체험 부스(굴렁쇠 놀이, 투호 놀이, 널뛰기, 달고나 만들기), 먹거리 부스(주막, 노천카페, 전통 찻집)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특히, 각 부스는 서천문화원의 문화강좌 수강생들과 강사님의 자발적인 봉사로 운영되었다. 문화강좌에서 배운 재능을 행사 참여자들과 나눔으로 더욱 풍성한 단오가 되었으며, 아름답고 훈훈한 마음 또한 느낄 수 있었다.

가장 인기였던 옷놀이 대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4명이 한팀이 되어 총 12팀이 참가하였으

며, 본선과 예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옷을 던지고 옷판을 보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즐거움으로 가득해, 보는 사람마저 웃음 짓게 만들었다. 옷놀이 대회로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는 즉석 팔씨름대회까지 이어졌다. 서로를 향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가 오갔고 단오절의 의미에 부합되는 열정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2023 서천단오제는 수많은 참여자분과 봉사자분의 무한한 에너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행사 현장에는 웃음과 활력이 끊이지 않아 그야말로 한여름의 낮보다 뜨거운 단오제였다.

청양문화원

임호빈 원장 재선



청양문화원은 지난 6월 22일(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거를 실시, 제14대 청양문화원장에 임호빈 현 문화원장이 당선됐다. 이로써 임 원장은 13대 원장에 이어 14대 원장에 취임한다.

이와 함께 부원장 임광빈·문명근, 감사 안치영·윤경수, 이사 방면석·김태연·이선엽·이동교·최영문·이면우·이충희가 당선됐다. 이 임원진은 7월 27일부터 앞으로 4년간 임기를 맡게된다.

임호빈 원장은 “문화가족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제14대 문화원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며 “문화원의 당면 과제와 발전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말했다. 또 “문화원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화

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청양문화원 신축 등 못다한 사업을 완료하고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한편 임원선거에는 회원 약 400여 명이 투표하였고, 당일 선거 후 개표를 통해서 당선자가 결정됐다. 이후 당선증을 교부하고 기념촬영의 시간을 가졌다.

청양군 문화의 산실 청양문화원



핫플레이스!

예산시장 중심에 있는 예산시네마의 오늘





예산시네마는 예산군민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최신개봉작과 화제작들을 만날 수 있도록 2017년 4월 12일 개관했습니다.

예산시네마는 2개 상영관 99석의 아담한 규모의 작은영화관입니다. 현재는 증축사업으로 4월 4일부터 휴관중에 있습니다.

개관 이래 2022년에는 누적 관람객 35만명을 돌파하는 등 군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군민들이 사랑하는 예산 장터와 국밥거리 부근에 위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영화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에 예산을 넘어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영화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인근 예산시장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에서 관람객의 발걸음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화관람 뿐 아니라 휴게 공간으로도 지역 주민 외에도 모든 이가 방문해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예산시네마는 영화관람 및 휴게공간으로서의 공간을 증진하기 위해 증축공사를 통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

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예산시네마 내부 휴게공간 확충 및 인테리어 개선을 통한 문화휴식 공간을 재조성할 계획이며, 외부 철거 및 안전의 이유로 4월 4일부터 휴관에 들어갔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예산시네마를 재조성해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예산군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지키고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예산시네마 내부 휴게공간 확충 및 인테리어 개선을 통한 문화휴식 공간을 재조성할 계획이며, 외부 철거 및 안전의 이유로 4월 4일부터 휴관에 들어갔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예산시네마를 재조성해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예산군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지키고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3 범군민 중앙대제 '전통 민속놀이 화합한마당'





태안의 대표적인 민속행사인 2023 범군민 중앙대제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2월 5일 태안읍 경이정 일원에서 거행되었다.

범군민 중앙대제는 태안문화원이 주최하고 태안군이 후원하는 행사이며, 지역의 평안과 군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제례 의식이다. 제의식 진행은 태안읍이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하며, 가세로 군수를 초헌관으로 하고 전재욱 부의장은 아헌관, 고종남 원장은 종헌관으로 참석하여 엄숙하고 경건하게 제례를 봉행했다.

이날 중앙대제와 함께 태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윷놀이,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고 군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 마

련 및 중앙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태안군지에 의하면 중앙대제의 기원은 백화산 중턱에 자리잡은 태을암과 마애불상이 있는 중간 지점에 산신당을 짓고 매년 정월에 산신제를 지내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산신당의 퇴락으로 인하여 1936년에 중단되었다가, 1972년 명칭도 산신제에서 중앙대제로 개칭하고 태안읍 이장단들이 맡아 주관하게 되었다. 이후 태안읍 제사에서 태안군 제사로 확대되었고, 원래 음력 열나흘날 밤에 지내던 제의 날짜와 시간도 음력 정월 보름 오전으로 바꾸어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고종남 문화원장은 “앞으로도 태안의 전통 민속 문화를 보존·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화로 빛나는 충남

문화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문화예술통아리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온양문화원

서산문화원

논산문화원

서천문화원

태안문화원



‘빈틈없이 아무진 사람’ 모도리 동아리



모도리는 ‘빈틈 없이 아무진 사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며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이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예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던 몇 명의 지역민들이 조금 더 쉽게 도자기 공예를 접하고자 도자기 페인팅을 시작하면서 2020년도에 결성되었다.

모도리는 도자기 페인팅을 하는 동아리인데,

흙으로 조물조물 원하는 기물을 만드는 것을 생략하고, 초벌 비스크(한 번 가마 800°C에서 구워진 기물)에 청화 안료(자기에 색 또는 문양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안료)나 도자기 물감을 사용하여 다양한 도안을 초벌 비스크에 붓으로 그려 넣은 후, 투명 유약에 담금 시유(시유:도자기 초벌을 마치고 재벌 하기 전 유약을 바르는 작업)를 한 뒤 재벌(두 번 가마 1250°C에서 굽는 것)하면 작품이 완성된다고 한다.

동아리 회원들에 관련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회원 중 일주일에 한두 번 2시간 정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품을 만들며 힐링을 하는 회원이 있기도 하고, 중년의 나이에 도자기 페인팅이라는 취미 활동을 하며 갱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완성된 작품으로 가족을 위한 식탁을 꾸미고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 식사를 하면서 자녀에게 ‘그림 그리기는 작가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계속 작가 활동을 하라는 칭찬과 격려 덕분에 실력도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한다.

회원들은 모도리라는 동아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는 힐링과 경험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한다. 함께 활동하면서 각자의 숨겨진 재능을 찾고 감성 그림을 도자기에 담는 도자기 페인팅의 매력을 느끼고, 한 해 한 해 플라마켓 판매, 전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조금씩 발전하는 가운데 각자의 가슴에 품었던 새로운 꿈을 펼칠 기회를 만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모도리는 회원들과 작품을 만드는 동아리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모도리의 다양한 작품들을 사진을 통해 만나보고, 작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도 만나보기를 바란다.



빛나는 하루에 아트를 더하다, 좋은사람들 밴드

서북구문화원-좋은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좋은사람들은 천안에서 활동하는 순수한 어쿠스틱 밴드로 지역봉사활동을 하며 음악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동아리입니다. 통기타와 하모니카, 타악기로 구성되어 다양한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며 행복을 나누며 오늘도 빛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악이 있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매주 일요일 오후면 각자의 바쁜 일상을 잠시 쉬고 소풍가듯 힐링의 시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스스로,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합니다.

올해는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의 생활문화활성

화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더욱 더 의미 있고 활기차고 즐겁게 연습하고 있어 흐뭇하기까지 합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우리는 각자의 맡은 파트에 몰입하고 진지한 눈빛으로 감성 충만한 연주의 장이 펼쳐져 감성플러스가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음악 실력을 향상시키고 틈틈이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예술과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즐거운 선물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음악회나 버스킹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관객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방식으로 시민들과



음악으로 함께 즐기며 더욱 친숙하게 호응하는 모습에서 우리에게서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좋은사람들 동아리는 천안시서북구문화원과 아름다운 인연으로 행복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어 행복합니다. 천안시서북구문화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는 온양문화원과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천안시동남구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함께해요! 아산 폴리스 천안' 행사에 초대되어 아산 신정호 야외음악당 광장에서 공연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좋은사람들은 오늘도 빛나는

하루에 아트를 더하다 처럼 마음껏 꿈을 펼치는 음악동아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있어 밝은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You and Me Sun』 우쿨렐레 동아리

2019년 처음으로 온양문화원 우쿨렐레 강좌 반(매주 수요일 오전 10:00~12:00)이 개설되었습니다. 음표와 쉼표가 뭔지, 박자와 악보를 볼 줄 모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40대~70대 왕! 초보들이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 하는 도전 의식으로 푹푹 뭉쳐 지금까지 헤쳐나오다 보니 2023년 온양문화원 생활문화 동아리 팀으로 선정되어 현재 ‘You and Me Sun 우쿨렐레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을까?” 했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기초부터 천천히 배워나가니 학교 다닐 때의 음악 시간의 즐거움을 떠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와이의 전통악기인 우쿨렐레는 ‘작은 벼룩(우쿠uku)’이 ‘통통 튼다(렐레lele)’라는 말이 합쳐져, 연주자의 손이 마치 통통 튀는 벼룩처럼 움직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쿨렐레의 모양은 통기타를 작게 축소한 모양과 비슷하



고, 줄은 나이론 줄로 부드러워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연주하며 노래 부를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악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부터 어른들이 좋아하는 가요까지 모든 장르의 곡들을 이 작은 우쿨렐레 하나로 연주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서툴지만 작은 성장의 씨앗들을 모아 ‘문화원 한마당 축제(2020년, 2021년, 2022년)’와 ‘아산시 생활문화 온택트 축제 공연’에도 참가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You and Me Sun 우쿨렐레 동아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우쿨렐레라는 작은 악기가 연

결 고리가 되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며 하나로 만들어가는 소통의 창구이자, 서로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쿨렐레 회원분들에게 언제나 감사드리며 또한 물심양면으로 저희 동아리를 지원해주신 온양문화원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쿨렐레를 배워보고 싶은데, 악보를 볼 줄 몰라 망설여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왕! 초보’부터 시작을 했으니가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온양문화원으로 오세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내 삶의 한쪽의 그림, 그림산책동아리

서산의 원도심에 위치한 그림산책 갤러리는 평일 저녁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미술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모여 시작하게 된 그림산책 동아리는 직장인, 가정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동아리는 7명으로 시작하여 지금 13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가 점점 없어지면서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한 명 한 명 모여 지금의 그림산책이 되었다. 회원 대다수가 맑고 투명한 수채화의 매력에 빠져 시작한다. 쉽게 수정할 수 없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붓 터치 한 번 한 번으로 달라지는 그림의 분위기는 수채화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 중 하나이다. 회원들은 수채화뿐만 아니라 유화, 어반드로잉 등을 다룬다. 자신이 원하는 작품의 방향성을 잡아 선생님의 자문을 받아 작고 큰 그림을 완성한다. 개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동아리가 운영된다. 이러한 전시 일정은 회원들의 작업 속도를 올리기도 한다.

회원들은 2021년 작품 제작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전'에 동참하기도 하였으며, 2022년에는 충남생활문화 축제에 참여하여 실력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2022년 서산문화원 「주민체감형 생활문

화비 지원 사업을 통해 ‘수채화로 만나는 그림산책’ 회원전을 개최하는 등 꾸준한 전시 활동으로 미술의 매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회원들은 “미술 하나로 친목 도모와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시간을 갖는 점이 동아리 활동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향후에는 사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림 작업을 통해 사회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한 회원은 공모전에도 출품하며 자신의 작업에 열의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다른 회원은 관내 벽화봉사에도 참여하며 사회의 일



원으로서 자신의 배움을 끊임없이 펼쳐가고 있기도 하다. “전문예술가들은 아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살려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역량을 갖기를 바라며, 그림을 통해 예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라며 그림산책 동아리를 지도해 주시는 그림산책 갤러리 김은주 관장님의 지도 열정을 볼 수 있었다. 그림산책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들의 삶에 그림산책이 한폭의 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사람들에게 하나의 붓 터치로 다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응원한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비단강문학회 동아리



문학은 무엇일까요? 문학은 인간의 삶과 감정을 표현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예술입니다. 문학은 나의 마음과 남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대화를 나누게 해주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학은 단지 책이나 잡지에 실린 글들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다른 예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결합하여 우리의 생활과 인식에 영향을 주는 단계로 성장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비단강문학회는 이러한 문학의 성장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존의 단체들이 하나의 공통된 분야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면서 전문가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비단강문학회는 확실히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시 창작, 시 감상, 문학 창작, 시낭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시와 낭송이라는 분야가 만나 시낭송이라는 대중적인 장르문학으로 자리한 것처럼 또 다른 결합이 어떤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탐색해가며 어떤 변화를 공유할 것인지 실험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단강문학회는 함께 공유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제



일 먼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낭송만으로 채워지거나 노래로 채워지는 버스킹이 아니라 다양한 문학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작은 책자 발간, 손바닥 시화전 등 하반기를 풍성하게 채워갈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창작자나 공연자로부터 출발하여 감상자들에게도 와 닿아 삶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비단강문학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권선옥 시인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평소 좋은 문학모임이 많을수록 서로 영향을 받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시인은 다양한 분야가 모이면 더 큰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비단강문학회라는 이름도 금강에 관해 노래한 시인의 시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강물이 되었을 때 모두가 기억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비단강문학회 역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며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얻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시키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회원들에게 문학적 재능을 발전시키고, 다른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단강문학회는 문학을 사랑하고, 다른 분야의 예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모든 사람을 향해 활짝 문을 열고 있습니다.

글꽃,글향기,글맛 서천캘리연합회



Q : 송수일선생
A : 양정미회장

Q 서천캘리연합회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A 곳곳에서 10회차, 20회차 단발적으로 캘리를 배우시던 분들 중 지속적으로 글씨를 쓰고 싶은 열정을 가진분들이 모이게 되었고, 특히 서천문화원의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지원사업을 통해 전시회를 계기로 연합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Q 명칭이 동아리가 아닌 연합회인 이유가 있을까요?

A 글꽃, 글향기, 글맛 이 세 동아리가 하나의 연합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글이 꽃을 피우고,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서, 맛을 낸다!’ 우리 연합회의 모토이자 서천캘리연합회라는 이름의 이유이기도

보고 있으면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글자가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지요.
 단 하나의 글자만으로도 메시지와 느낌을 충
 분히 전달하기도 합니다.
 붓의 유연성을 가지고 굵고 가느름의
 강약조절을 하며,
 그리는 손 저마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개성있는 글씨 쓰기,
 캘리그래피(이하 '캘리')!
 서천문화원의 인기 강좌이자 서천의 예술문
 화를 이끌어 나갈
 동호회 <서천캘리연합회>를
 송수일 선생과 양정미 회장의 인터뷰를 토대
 로 재구성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합니다.

Q 선생님은 어떻게 캘리를 시작하시게 되었나
 요?

A 전공은 패션디자인이고, 서천에서 캘리를
 독학으로 시작한지 10년쯤 됩니다. 먼저는 최
 명규문화원장님께 문인화·사군자를 배웠는
 데, 글씨쓰는 것을 더 좋아해 캘리의 길에 들
 어서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캘리의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끌어 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어요.

Q 캘리의 매력이 뭘까요?

A 짧은 단어, 문장 속에 작가의 의도와 감정

을 표현하여 글자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캘리의 매력입니다.

Q 서천캘리연합회를 사랑해주세요.

A 먼저 회원들의 열심과 열정이죠. 회원 중
 4~5명은 작가의 꿈을 갖고 각종 대회에 부지
 런히 출품하고 있는데 작년 신석초캘리그래피
 대회에서 최우수상, 특선을 입상하였고 전국
 서예대전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회원들
 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위
 해 작가지망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
 하며 길을 안내하고 계시죠. 선생님께서는 자
 기의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회원들에게 모
 두 내어주시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그



게 큰 사랑이고 감사예요.

Q 서천캘리연합회를 이끌며 가장 보람있었을 때는요?

A 무엇보다 작년 전시회였죠. 애쓰고 수고한 결과물을 내어놓고 많은 분들이 반응해주시고 칭찬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올해의 계획은?

A 먼저는 두 번째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에 작가지망생들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입니다. 재작년 서천홍보물공모전(동상)과 청암브랜드상품공모전(동상)입상을 경험으로 서천의 여러 가지 상징들을 캘리와 접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올해의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서천캘리연합회의 비전은?

A 지속적으로 지역문화를 아름답게 꽃피우고, 서천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서천을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천캘리연합회가 나와 너의 배움을 넘어 서천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곳이 되고 싶다는 송수일선생님의 포부! 나-너-우리를 생각하는 포부가 굉장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맛’은 세월과 함께 퇴색하지만, ‘맛’은 세월과 함께 더해지는 법이니깐요. 이상, ‘우리가 쓰는 글에서 꽃을 피우고,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서, 맛을 낸다’는 “서천캘리연합회”였습니다.

아이들의 꿈의 숲, 상상구름판



“예술놀이단 상상구름판” 화이팅!!

처음 시작은 재미있는 추억 만들기였습니다.

10여 년 전, 아이의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보여줄 짧은 인형극을 준비하며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그림책의 세계에서 만난 인연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동아리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매 작품마다 신기하게도 준비과정은 늘 부족한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작품을 선보이고 난 후에 오는 뿌듯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을 모두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동일하게 느꼈던 이 감정이 동아리를 이어가는데 중심점이 되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든 공연 예술을 종합예술이라 칭하는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협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무대를 채우는 소품, 음향, 조명, 관객을 맞이하는 작은 손길까지 참으로 많은 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들여 작품 준비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짧은 시간을 내어 주는 회원들 역시 동아리 내에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필요한 도움을 주고 성취감을 함께 느끼며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다양한 아동극을 제작하고 직접 공연 해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책 이야기부터 상상구름관의 새로운 창작극, 모두에게 친숙한 전래동화,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 인형극부터 사물을 활용한 물체극, 그림자극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함께하는 것만으로 마냥 즐거워 늦은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커다란 스펀지로 인형 탈과 소품을 만들고 대본 연습을 하며 친목을 다져갔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열정만으로 동아리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곳 태안에는 근거리에서 저희를 이끌어줄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언

제든 찾아가 배울 수 있는 공연 관련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타 지역으로 아동극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찾아 수업을 받고, 자체 스터디 시간을 가지며 동아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 가득한 시간과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의 상상구름관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덕분에 다양한 도내의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동아리의 내실을 튼튼하게 할 수 있었으며 관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구름관은 긴 시간이 지나도 이곳 태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아동극을 보고 느끼며 무한한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민들이 많아져 더욱 발전하는 상상구름관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태안을 넘어 전국에 이름을 알릴 '예술놀이단 상상구름관' 화이팅!!

민
화
원
이
야
기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온양문화원

서산문화원

논산문화원

당진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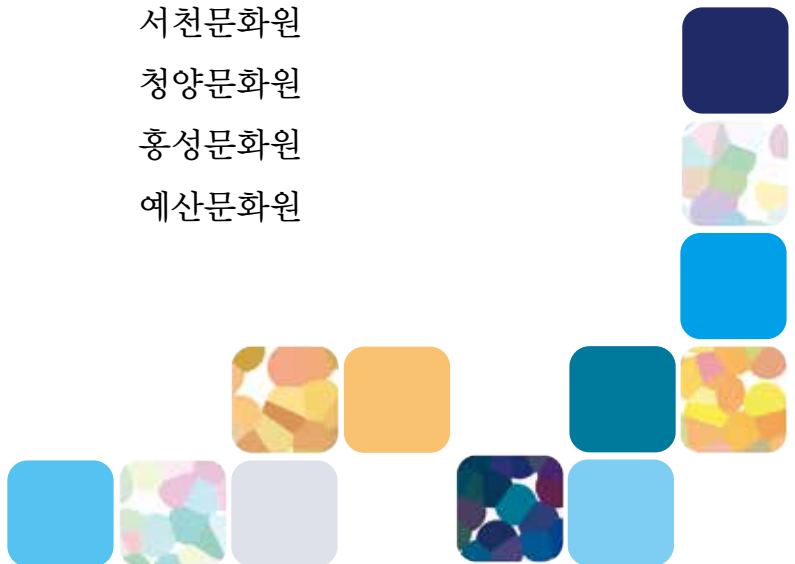
금산문화원

서천문화원

청양문화원

홍성문화원

예산문화원





천안 시민의 안녕과 전통 민속놀이 계승발전을 위한 화전놀이 축제

충남 천안시 병천은 매달 1·6일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 문화원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일장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21일 아우내장터 발전과 번영은 물론 천안 시민의 안녕과 전통 민속놀이 계승발전을

위해 ‘2023년 화전놀이 축제’를 열었다.

화전놀이는 삼월 삼짇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 무리를 지어 교외나 산 같은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 하루를 즐기는데 음식을 먹고 꽃을 보며 노는 꽃놀이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진달래꽃을 따서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지져 먹으며 즐기니, 이 지짐이가 곧 화전이며 그 날 놀



이 역시 화전놀이라 하게 되었다.

부대행사는 전통놀이, 음악, 춤 등 다채로운 놀이들로 채워져 많은 시민들이 즐거움 속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날이 되면 여성들이 평소에 숨겨두었던 다양한 재주를 마음껏 드러내는 경연장이 펼쳐지는데, 이날 지역주민들이 편을 나누어 화전 솜씨를 겨루었다. 곱게 한복을 입은 지역 주민들이 파전팀, 야채전팀, 김치전팀이 나와 화전을 만들어 시식행사가 진행되었다.

화전은 진달래꽃을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가면서, 둥글게 지져 만드는 것이다. 곱디고운 화전들이 수놓여져 있어 먹기 아까울 정도였다. 요즘 화전은 파는 곳도 거의 없고 집에서 하자니 번거롭기도 하여 화전은 먹기 쉽지 않다. 화전 만드는 것과 시식을 할 수 있는 체험이 있어 옛날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행사이다.

해마다 봄철에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먹고 옛 선조들의 놀이문화를 화전축제에 담아내어 아우내장터 오일장을 찾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일상에서 옛날의 정과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걸어요 함께 즐겨요



여름을 시작하는 달이자 봄을 마무리하는 6월, 그 시작을 여는 1일, 우리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은 문화원 회원과 수강생이 함께 '2023년 제3차 문화유적탐방'을 떠났다. 충청남도의 바로 옆고장,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이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다.

첫 번째 탐방지는 제천시이다.

배론성지,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가톨릭 성지로 조선의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숨어들어오며 형성된 교우촌이다. 배론은 마을 계곡이 배 밑창을 닮았다는데서 유래되었는데, 황사영 백서가 쓰여진 역사의 땅이자 성 요셉 신학교가 있었던 교육의 땅이자 최양업 신부님이 잠들어 계신 성소의 땅이라고 불린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의 공간에 도착한 회원과 수강생들의 설 틈 없는 찰칵 소리가 그들의 설레는 마음을 짐작하게 했다.

다음으로 의림지는 고대에 축조된 저수지로 가뭄과 침수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해왔다. 뿐만 아니라 예부터 문인들의 격조 높은 풍류 장소로 여겨지는 정자와 누각이 휴식공간으로의 역





할을 다하고 있고, 의림지 제방 위에 조성된 소나무와 버드나무숲은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우리는 선선한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우쿨렐레 문화교실팀이 연주하는 우쿨렐레의 맑은 소리가 더해져 옛 문인이 된 기분으로 의림지 둘레길을 걸었다.

두 번째 탐방지는 단양이다.

제39회 단양 소백산 철쭉제가 진행되는 상상의 거리에 도착하자 종일 흐릿했던 하늘이 맑게 개었다. 연분홍의 꽃잎을 더욱 만끽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신나는 발걸음으로 행사장을 누볐다. 캐리커처 부스는 줄이 꽤나 길었고 그 밖에도 타로, 바람개비, 비누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먹거리 부스까지 가득했다. 단연 기억에 남는 것은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있던 분재다. 철쭉을 그대로 축소시켜 분재로 만들어놓았지만 그 멋스러움 만큼은 산에 피어있는 철쭉에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역시나 다들 철쭉의 아름다움에 취했는지 다음 목적지로의 출발이 조

금 늦춰졌다.

마지막 탐방지는 진천이다.

중 박물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 종의 예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자 2005년 개관한 곳이다. 야외전시장에 있는 커다란 종을 누가 가장 잘 치는지 대결이라도 하듯 즐기며 체험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물관 안에서는 범종, 동종, 학교종, 교회종, 핸드벨 등 다양한 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을 마치고 문화유적탐방을 마무리하기 전,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의 우쿨렐레팀과 색소폰팀의 연주회가 열렸다. “조개 껍질 묶어~”, “진토 배기~”멋진 연주에 맞춰 박수치고 따라 부르며 다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불벌더위가 아직 고개를 내밀지 못하던 좋은 날, 자박자박 걸으며 자연을 느끼고 음악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내며 ‘2023년 제3차 문화유적탐방’을 의미있게 마무리했다.

2023 아산천안행정협의회 협약사업(문화교류)

“함께해요 아산 플러스 천안” 문화교류 행사 가저...



온양문화원(원장 정중호)은 6월 17일(토) 오후 7시, 아산시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아산시와 천안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협약 사업으로 ‘함께해요 아산 플러스 천안’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아산시와 천안시 상생 발전과 공동생활권 갈등 해소 및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천안 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추진된 상생협력 교류전이다.

온양문화원과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서북구문화원이 공동 주관하고 아산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이종석 충남문화원연합회장(천안서북구문화원장), 김윤식 천안동남구문화원장, 김윤숙 당진문화원장, 이동현 한국예총 아산지회장, 류덕희 아산시자율방범연

합대장, 유영금 따사모 봉사단 대표, 온양문화원 이사 등 시민 4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정중호 온양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산과 천안이 함께 하는 뜻깊은 행사를 아산 신정호에서 개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 즐기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축사를 통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번 교류전으로 인근에 있는 아산과 천안이 문화적으로 함께 가까워지길 바라며, 지속적인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문화 역량과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정호 아트밸리를 중심으로 아산을 365일 문화예술이 넘치는 고품격 도시로 만들겠다”며 오는 8월부터 ‘Happy Holic Five days’행사가 열린다. 11일부터 5일간 락 페스티벌, 별빛음악제, 뮤지컬 영웅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2023 아산천안 행정협의회 협약사업(문화교류) 함께해요! 아산 플러스 천안 행사는 천안동남구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능수양상블랜드(천안)의 엄마아리랑, 오라버니, 남행열차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예술단 소리락(아산)의 쾌지나 칭칭 나네, 판소리 재즈와 놀다 ‘복이왔구나’공연과 천안서북구문화원 소속 통기타팀 좋은사람들(천안)의 숲속의 작은집, 노란샤스사나이, 온양문화원 빠담 빠담 장구난타(아산)의 사랑의 트위스트, 짚이야, 아랑이 색소폰(아산)의 아름다운 강산, 당신이 좋아, 오보에 유종석(아산)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벨라판타

시아 연주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초청공연인 국악인 남상일의 장타령, 배 띄워라, 사랑가 공연 시에는 행사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이 국악의 향연속에 함께 어우러지며, 초여름밤을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문화와 예술로 하나가 되고자 아산시와 천안시가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건전한 문화교류 행사와 협력으로 문화 예술인들의 화합의 자리가 되었으며, 특히 서로 상생하고 같이 살아가는 생활권 안에서 정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본 행사는 아산을 시작으로 10월~11월 중 천안동남구문화원과 천안서북구문화원 주관으로 천안지역에서 교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우리동네 뉴스



올해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서산의 축제로 가득 들어찼다. ‘우리동네뉴스’는 2020년은 귀농 귀촌, 2021년은 서산의 주민자치회, 2022년은 서산의 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작한 것처럼 매년 서산에 대한 소식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달하고 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인

해 침체된 축제를 활성화시키며,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유익함을 주고자 축제 관계자(축제위원장 및 축제담당자)를 섭외하여 서산시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출연자들은 영상에 보다 유익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자와 몇 차례 수정을 거



치며 대본을 작성하였다. 그에 맞춰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동네뉴스 담당자는 영상 기획안 작성과 스토리보드 등을 발 빠르게 준비하였다. 촬영 준비를 모두 마치고 촬영을 진행하는 날이었다. 출연자들은 축제 준비로 바빠 잠잘 시간도 없었지만 촬영 대본을 미리 암기해오며 자연스럽게 대사가 오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스튜디오를 처음 접한 출연진들은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촬영 시간이 지날수록 편하게 진행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몇몇 출연자분들은 풍성한 축제홍보를 위해 감자, 마늘 등 축제 관련한 농산물들을 가져와 촬영장을 직접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촬영 과정이 끝난 영상은 편집을 마치고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다. 축제의 숨은 정보들, 뒷이야기들을 알고 싶다면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면 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영상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알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동네뉴스는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의 시대 속에서 영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불어 보탬이 되는 정보들을 전달하는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주기 바란다.



논산

단오놀이



음력 5월 5일 단오날은 해가 가장 뜨겁고 정오 때가 되면 한가운데에 온다 하여 '단오(端午)' 또는 '천중절'이라고 했다. 농경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삿날이었고 수리취떡 등 음식을 마련하여 여자는 창포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 등 다양한 놀이로 하루 즐겼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중의 하나였다. 그간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연초에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독감과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해 행사를 취소했다. 올해부터 여름 행사로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이었던 단오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 17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다는 날씨에도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논산 단오놀이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논산원조두레풍물단의 풍물을 시작으로 단오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서 썸썸여자중학교 소리모듬 난타, 국악놀이패 흥나리의 연주와 민요,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을 펼쳤다. 국악장기 자랑을 열어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도 마련했다. 체험 행사로 창포에 머리 감기, 창포 비누 만들기, 화전·화채 맛보기, 단오부채 만들기, 장명루 팔찌 만들기, 손수건 꽃물 들이기 등 단오날 즐겼던 체험들로 꾸며져 부스마다 북적였다. 특히 그네뛰기는 단오에 많이 즐겼던 민속놀이로 그네를 제작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참여했다. 느티나무 밑에서 그네와 널까지 설치하여 시원하게 타면서 단오놀이를 즐겼다.

웃놀이 대회는 1팀이 3명씩 구성해 25개 팀이 사전 신청하였다. 주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승부를 떠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씨름을 대신해서 처음 개최한 어린이 팔씨름 대회



는 유치부, 초등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참가한 어린이들이 웃고 울며 열띤 승부를 펼쳤다. 옷놀이와 어린이 팔씨름 대회 후 1위부터 3위까지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한편 투호와 제기차기는 현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한 가운데 많은 도전이 이어졌다. 경연은 더위로 실내에서 열려 문화원 1층이 참가자와 응원하는 시민들로 꽉 차서 성원을 이루었다.

시원한 여름 나기 논산 ‘단오놀이’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 등이 알차게 꾸며져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것은 물론 논산을 대표하는 여름 행사로 손색이 없었다.

많은 어린이들이 단오놀이를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새롭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좀 더 나은 여름 축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 본다.

‘전통문화는 지속 전승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유산’ 2023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한마당



지난 2월 4일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자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당진문화원에서는 이날 탑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한마당’을 2023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당진시민 약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체육관 입구부터 많은 인파가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실 정월대보름 행사는 당진 관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이 열리고 있지만, 문화원에서는 전통민속놀이의 계승, 전승에 포커스를 맞춰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민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 추진하였다.

이번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한마당을 통해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놀이마당으로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팽이치기를, 체험마당으로 가훈써주기(소원방쓰기), 문인화 부채그리기, 짚풀공예, 연만들기 등의

체험이 진행되었다. 놀이마당은 프로그램별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시민들이 참가하였으며 정해진 각 구간별 백두상과 한라상 상품을 준비하여 참여하는 시민들이 상품도 받아갈 수 있게 재미를 더했다.

행사장 축하공연으로는 난타와 풍물놀이를



기획하여 풍성한 무대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시



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또한 먹거리 부스도 마련하여 전통차 시음도 하고, 오곡주먹밥과 어묵탕을 먹으며, 보는 재미, 노는 재미, 먹는 재미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놀이마당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쯤 사진



에 참가신청을 받은 팀들이 모여 단체줄넘기를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커다란 보름달을 연상하게 하는 박에 시민들이 오재미를 던지며 박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기대를 하며 박을 터트렸다.

이처럼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 계층

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을 어떻게 만드는지, 팽이를 어떻게 치는지, 윷놀이 말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는 어린이, 젊은이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계승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역할을 바로 지방문화원들이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민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을 이해하고 아끼고 더 나아가 후대로 전승, 계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화원이 앞으로 책임과 사명감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활동의 장으로의 역할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가 지속해서 전승될 수 있도록 문화원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문화원 비석제 사제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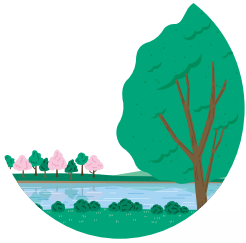


5월 15일 남일면 초현리 풀고개센터에서 군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비석제 사제동행이 거행됐다.

비석제는 비제(埤祭) 또는 비석제(埤石祭)는 마을이나 고을에서 학덕이 높은 향선생(鄕先生)을 기리는 행사를 말한다. 동문수학한 문인들이 특정한 기일에 스승의 비석 앞에 공경히 제수를 차려놓고 향사하는 것이다. 스승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금산의 비석제는 금산만의 독

특한 문화 현상으로 뿌리를 내렸다.

비석제를 통하여 고인이 되신 스승의 학덕을 흠모칭송하고 추모하는 제향을 마친 뒤에는 모든 문생과 추모객이 한자리에 모여 으레 시연(詩宴)을 개최하여 저마다 멋들어진 한시를 지어 평소 갈고닦은 재주를 선보였다. 따라서 비석제가 열리는 날은 비단 문인뿐만 아니라 시문을 아는 주변의 선비들과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 때문에 비석제가 열리는 날은



문생 계마다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동네잔치를 베풀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비석제가 거행되는 음력 3월은 스승과 제자, 문인들과 추모객이 하나가 되는 격조 있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다.

비석제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돌에 새긴 비석 11점이 현존함에 오랜 시간 지역에 뿌리내린 사제 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매년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비석제는 그동안의 비석제와는 다르게 축하공연과 체험마당도 풍부하게 치뤄졌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과 부채만들기를 통해 모두가 참여하

고, 풍선아트와 카네이션 꽃방향제를 만들어 스승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민속촌 조선즈가 방문하여 공연함으로써 비석제를 한층 더 풍부하게 치러지게 했다.

이제 뜻깊은 스승의 날에 진행되는 비석제는 살아 숨 쉬는 금산만의 마을 문화의 상징으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사연으로 선비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는 충효의 땅 금산의 자랑이 될 것이다. 벚꽃은 팝콘처럼 팽! 하고 터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금산천으로 나들이 나온 금산문화원 회원들



만개한 벚꽃과 개나리 노오란 꽃그늘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손길들이 분주했다. 팝콘같이 펑 터져버리고 흩날려버린 봄꽃 덕분에 금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봄꽃축제가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모두들 노심초사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자신감 아래 봄꽃축제는 마지막 봄꽃들과 함께 봄꽃 행사를 시작했다.

봄이 다가오면 금산 사람들은 금산천으로 모여든다. 벚꽃나무 아래 개나리가 일렁이고 징검다리 옆으로 따듯한 봄 햇살에 깨어난 물고기들이 춤을 춰서일까? 추운 겨울 날씨에 산책을 조심하던 금산 사람들은 봄이 오자 산책로에서 반갑게 안부를 묻는다.

봄꽃 행사 일정이 잡히고 금산읍은 분주해졌다. 제일 먼저 금산군의 사회단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금산군의 사회단체들은 가지각색의 모양의 포토존을 설치했다. 봄꽃으로 꾸며진 꽃들과 조형물이 행사장으로 모여들었다.

금산문화원에서는 짚으로 만든 인삼 작품이 소풍을 나왔다. 이 밖에도 꽃 벤치에 앉은 곰돌이, 꽃 지게, 꽃 포클레인 등이 봄 햇살을 맞으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행사장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았다.

드디어 제13회 금산천 봄꽃축제가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시작됐다. 금산천봄꽃축제추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행사는 문화동아리 공연,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대회, 뗏목 타기 체

금산 판소리, 삶꽃 기타,
공명 아우라 난타, 나아내 풍물단



힘 등으로 풍성하게 진행됐다. 금산군자원봉사 센터의 체험 프로그램 장에서는 뽕송한 어린이 손톱에 꽃분홍색 네일아트가 입혀지고 있었다. 얇전히 앉아 부끄럽게 고사리 같은 손을 내민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고 봄꽃축제 지정식당인 금산군새마을회의 식당에서는 무료 나눔으로 진행된 국수가 꽃 쟁반에 담겨 손님상으로 부지런히 옮겨지며 덕담이 오고가고 있었다.

사회를 맡은 금산문화원 양가람 양의 피꼬리 같은 판소리 가락과 함께 금산문화원의 공연도 시작되었다. 금산문화원의 공연은 파랑새밴드, 금산국악관현악단, 금산 판소리, 삶꽃 기타, 공명 아우라 난타, 나아내 풍물단 순서로 따스한

햇살과 함께 진행되었다.

유난히 봄 햇살과 잘 어울리는 우리의 전통 의상들을 입은 금산문화원 공연자들이 봄꽃축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잘한다! 열쑈! 하는 관객들의 환호에 공연자들의 얼굴도 밝아졌다.

모여드는 관객과 공연자가 하나가 된 공연이 다음을 기약하며 마무리되었다.

공연이 끝난 후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와 시선을 옮기니 나아내풍물단이 보였다. 징검다리 위에서 연신 포즈를 잡는 나아내풍물단의 모습은 보는 사람까지 즐겁게 만들었다.



“한산모시짜기 배워봅시다”

2023 한산모시문화제 한산모시학교

한산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며 섬세하고 단아하여 모시의 대명사로 불리어 왔다. 한산모시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1989년

제1회 저산문화제를 시작으로 매년 한산모시문화제를 열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한산모시짜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강사는 한산모시짜기 무형문화재 방연옥 기능보유자를 비롯한 전문이수자들이 참여하였으며 한산모시 제작 영상교육을 시작으로 1교시 태모시 벗기기, 2교시 모시짜기와 모시삼기 3교시 모시날기와 모시매기 4교시 꾸리감기, 5교시 모시짜기 순으로 진행했다.

1교시 태모시 벗기기에서는 모시품의 껍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속대와 분리시킨 후 겉껍질을 모시칼로 벗겨 속껍질만 분리하여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진행했다. 2교시 모시짜기와 모시삼



이에 서천문화원에서는 2023년 한산모시문화제 기간에 한산모시관내의 모시전통마당에서 한산모시 제작과정에 대해 배우고 체

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한산모시학교를 운영했다. 사전신청을 받아 3일간(6월9일~6월11일) 8기수로 나누어 약 300여명의 입학생(군민 및 관광객)들이 참여했다.

기에서는 햇볕에 말린 태모시를 이로 쪼개 모시 섬유의 굵기를 일정하게 만들어 ‘이골난다’란 말이 유래됐을 정도로 고된 작업임을 온몸으로 느끼기도 했다. 모시짜기를 끝마친 다음 모시 섬유 한뭉치를 “편지”라는 버팀목에 걸어놓고 한올씩 빼어 양쪽 끝을 무릎에 맞이어 손바닥으로 비벼 연결시켜가며 광주리에 차곡차곡 쌓아 모시긋을 만들었다. 3교시 모시날기와 모시매기에서는 10개의 모시긋에서 “젓을대”의 구멍으로 실끝을 통과시켜 한 묶음으로 한 후 날틀



2023

한산모시문화제 한산모시학교



에 걸어 한필의 길이에 맞추어서 날실의 길이로 날고 새수에 맞추어 날실의 올수를 맞추는 모시 날기 과정을 보고 배웠다. 모시매기의 “매다”는 “다했다”라는 완성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 과정만 거치면 모시짜기를 위한 준비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 무더운 여름에 불앞에서 작업해야 하는 힘든 작업이기도 하다. 모시매기는 바디에 끼워진 모시를 한쪽은 도투마리에 매고 다른 끝은 “끌게(도투마리를 감으면 끌려온다 하여 붙여진 이름)”에 매달아 고정시킨 후 콩가루와 소금을 물에 풀어 만든 풋넛가루를 뺏솔에 묻혀 날실에 골고루 먹인다. 그리고 이음새를 매끄럽게 하고 왕겉불로 말리면서 도투마리에 감는 과정이다. 5교시 모시짜기는 직접 베틀에 앉아 모시를 짜는 과정으로 많은 인기가 있었던 수업이기도 했다. 모든 교육을 마친 후 “모시여행기”라는 참여형 연극 및 졸업식도 진행하여 입학생들의 열띤 반응이 있었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그

것은 기우였다. 입학생들은 한산모시의 제작과정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 뜻깊고 좋았다고 입을 모았고 “모시여행기”라는 연극을 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입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크게 웃기도 했다. 한필의 모시가 만들어 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손길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모든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존경스럽고 그림다는 입학생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 지기도 했다.

본 지면을 통해 더운 날씨에도 한산모시짜기 과정을 즐겁게 즐겨주신 모든 입학생들과 강사로 참여한 방연옥 기능보유자를 비롯한 전문이수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산모시가 잘 보존되어 길이 전승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한산모시의 명맥을 이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전국 최대 장승공원에서 열리는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소원 들어주는 장승 만나러 왔슈~”



다양한 장승을 한자리에서 만나며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즐기는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이하 장승문화축제)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열려 청양군민과 관광객들이 코로나19 극복의 기쁨을 만끽했다.

청양은 대치면 한티마을 등 10여 곳의 마을이 음력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장승제를 지내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테마공원인 장승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최고의 장승 문화 보존지역으로서의 이름을 얻게 되었고, ‘장

승’을 주제로 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장승문화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축제는 장승공원 중앙에 자리한 키 10여 미터의 국내 최대 장승인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장승제로 문을 열었다. 대장승제에는 현관, 청양 10개 읍·면의 마을 제관 등 군민과 관람객들 300여 명이 참여했다.

“마을 장승제 시연, 신기해요~”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마을 장승제 시연



이 장승문화축제의 메인 행사다. 올해 축제에서는 대치면 한티마을, 정산면 해남리·천장리 등 3개 마을 장승제가 열렸다.

마을 주민들은 직접 깎은 장승 2기를 세우고, 술잔을 올렸으며 소지를 하며 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지길 바랐다. 장승 옆에는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오리 모양의 솟대도 함께 세웠다.

관람객 김 씨는 “장승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축제에 와서 장승제를 볼 수 있어 좋다. 조상들이 술잔을 올리고, 소지하면서 가정의 평화

와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했다는 전통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제사가 끝난 후에는 떡과 과일을 나눠 먹고, 음복하니 이 또한 축제의 즐거움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주 무대 옆에서는 전국의 장승 조각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승을 깎는 제작 시연이 진행됐다. 청양의 작가 등 칠갑을 상징하는 7인의 장인들의 손끝에서 해학적이면서도 개성 넘치는 14기의 장승이 태어났다. 이렇게 만든 장승들은 장승 공원에 세워져 연중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기념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 되고 있다.

장승을 소재로 한 관람객 체험 행사도 열렸다. 장승을 휴대할 수 있는 크기의 열쇠고리 만들기, 미니솟대 만들기, 장승그리기대회 등이다.

장승문화축제는 전통문화 다채로운 전통문화 예술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부여군충남국악단은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경기민요, 판소리 흥부가를 들려줘 관람객들의 흥을 돋웠다. 청양은 웃다리농악의 탄생지로서 웃다리농악을 전승 계승하는 예인들의 공연도 무대에 올랐다.

특히 관람객들과 한마음으로 어깨를 들썩이게 했던 무대는 전통 줄타기 공연과 대기놀이였다. 마당놀이 형식으로 펼쳐진 아슬아슬한 예인의

연기는 관광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으며 창공을 가르며 펼쳐진 대기놀이는 웅장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기개를 느끼게 하는 공연이었다.

트롯가수 최유나와 한강, 지역 출신 가수 이솔의 축하공연에 팬들은 환호로 답했으며 지역예술인들의 난타·민요 공연도 무대에 올라 평소에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임호빈 칠갑산장승문화축제추진위원장(청양문화원장)은 “올해 장승문화축제는 코로나를 이겨낸 군민과 함께 관람객들이 신명나게 즐기면서 장승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축제로 준비했다”며 내년 축제에는 청양 특유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한 해의 평온을 기원하며



우리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인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1년중 가장 큰 보름이란 뜻으로 음력 정월 15일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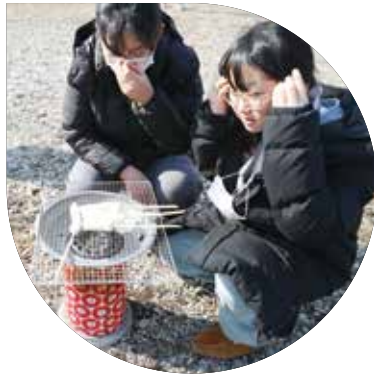
홍성문화원은 해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진행을 못하다 올해 2023년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 활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지내던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대보름을 함께하기로 했다. 정월대보름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이해 대문앞에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라고 입춘첩을 써서 붙이기도 했다.

세시 풍속에 따라 정성스럽게 소원을 써서 달 집에 매달아 태워 날려버리고, 까치밥을 주는 풍속도 있었다. 까치밥은 까치가 와서 먹으라고 장독대나 담장위에 놓아두는 밥인데 까치에게 밥을 주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홍성문화원은 점점 사라져가는 민속문화 행사 재현과 공연, 체험 등을 진행했다.

민속놀이 체험으로 전통연을 만들어 날리기와 전통 옷놀이 마당을 펼치고, 널뛰기와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전통떡지기 등을 펼쳤다.

옛날에 논두렁 밭두렁에서 행해지던 쥐불놀이인 빈 깡통에 구멍을 뚫어 끈을 매달아 숯불을 넣어 돌리는 쥐불놀이를 하였지만 요즘엔 시



대의 변화에 따라 LED 깡통 쥐불놀이로 대신 했다. 또한 연탄화덕에 연탄불을 피워 옹기종기 모여앉아 가래떡을 구워 먹으며 가족들과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일년내내 좋은 소식만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밝이 술을 준비해 나눠마시고, 일년내내 무사태평하고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호두, 땅콩 등 부럼을 깨는 행사도 진행했다. 정성스럽게 쓴 소원지를 달집에 메달아 달집을 태우며 모든 액운을 날려버리고 한해의 소망을 빌며 흥성군민들의 마음을 따뜻이 녹여 주는 정월대보름의 행사를 성대히 마쳤다.



— 홍예공원 속 풍익상회 —



예산문화원은 지난 7월 1일 ‘2023 문화가 있는 날 예산문화점쟁 소확행’의 첫 프로그램인 ‘풍익상회’를 내포 홍예공원에서 개최했다. 풍익상회는 한국전쟁 제73주년을 맞아 조국 수호에 헌신한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주제를 ‘예산의 역사적 인물인 김풍익 중령을 기

억하며’로 정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 김풍익 중령을 재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시대가 지나는 아픔과 기억을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해 지역민에게 숨은 역사를 알리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 주제 영



상 '포화 속으로'는 김풍익 중령의 이야기를 미디어, 화약, 레이저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의 애국정신을 담고자 노력했다.

또한, 공동스테이지구역 YSA 공연에서는 뮤지컬 갈라쇼와 지역문화예술팀의 공연이 펼쳐졌다. 역사 계임을 통해 스탬프를 획득하는 '꼬물꼬물 6·25 전쟁 역사 이야기', 태극기 퍼즐 퀴즈 '나는 한국인이다', 옥수수 팝콘 만들기 게임 '웰컴투 예산골', 물풍선 맞추기 '국군훈련소', 자연체험 프로그램 '나무야 놀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내포 홍예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녹음이 푸르른 여름, 가족과 나들이 겸 내포 홍예공원에서 산책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예산문화원 2023 기획프로그램

"홍예공원 속 풍익상회"

충남의 구석구석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천안시서북구문화원

공주문화원

보령문화원

온양문화원

논산문화원

당진문화원

서천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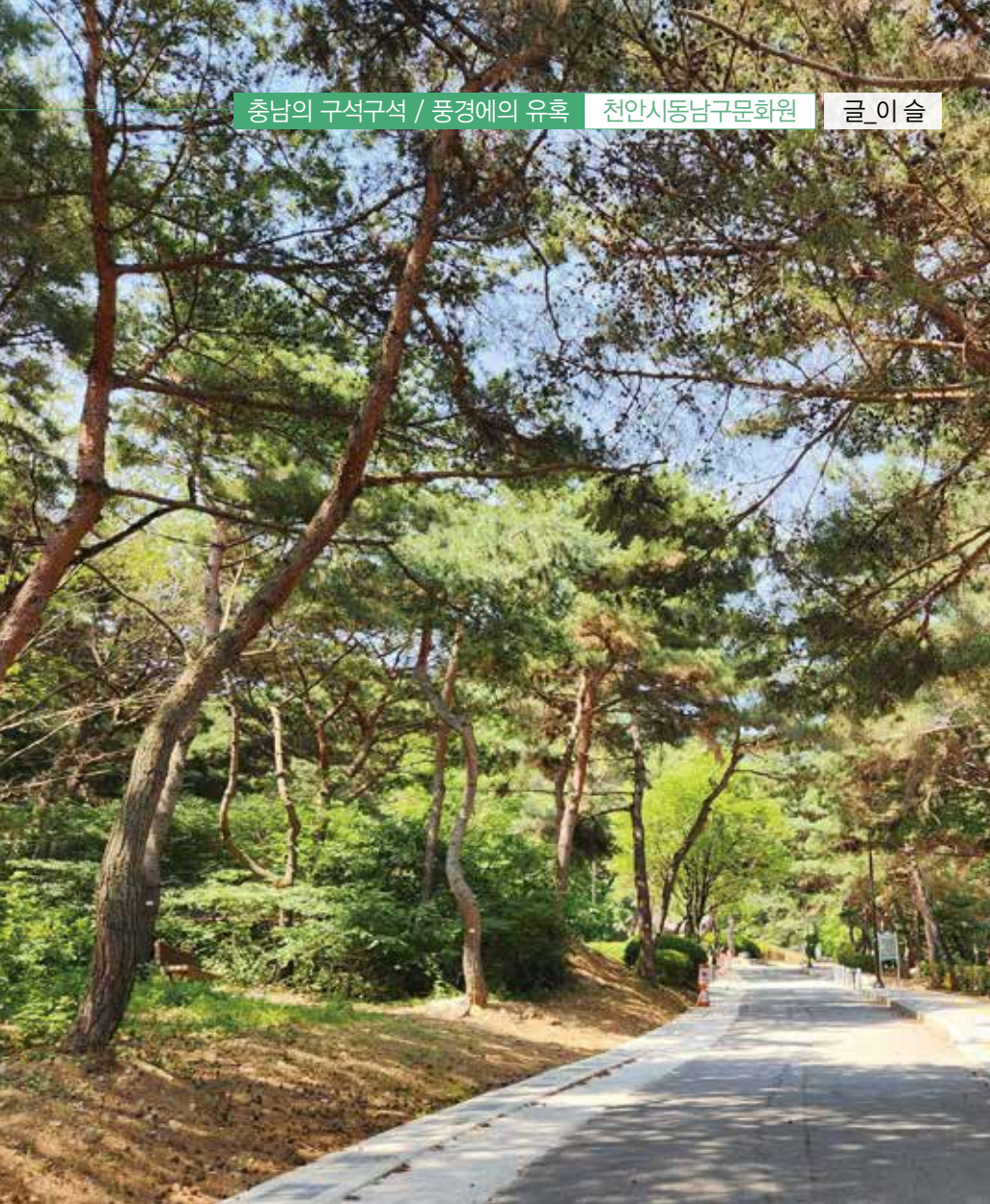
홍성문화원

태안문화원





태 학 산 자 연 휴 양 림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태학산은 천안시 풍세면과 광덕면, 아산시 배방읍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학의 형태와 닮았다고 해서 ‘태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소개할 태학산 자연휴양림은 태학산의 동쪽에 있는 자연휴양림이며, 2001년에 개장하였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은 휴양림으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려 시대 보물로 지정된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이 있는 곳이며, 태학사와

법왕사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어린이놀이시설, 유아숲 체험원, 등산로 등 시민들에게 숲에서의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와 다양한 자생화가 있어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태학산 자연휴양림 내에 ‘태학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는데,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시민들의 정신 건강 치유와 회복 및 다양한 산림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사이좋은 길, 새소리 명상터, 치유광장, 향기치유원, 풍욕장 등으로 조성되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태학산 치유의 숲으로 힐링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산림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색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태학숲의 하루'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치유의 숲 전체를 이용해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체험 내용과 예약 문의는 '천안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심 속 유아들의 오감발달 및 생태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고, 숲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월~금 정기반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전 10시~11시 30분, 13시 30분~15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말한 고려 시대 보물로 지정된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은 보물 제407호이며, 높이 7m의 고려 시대 마애석불(암벽이나 구릉에 새긴 불상을 뜻함)이다. 삼태리 마애여래입상을 찾기 위해서 휴양림을 오르는 중간중간 안내판에도 잘 안내가 되어있지만 배너로 현재 위치에서 얼마큼의 시간과 거리를 가면 찾을 수 있는지도 중간중간 안내가 되어있기 때문에 입상을 찾으러 올라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입상 근처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갈림길과 바위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태학사 가는 바위에 새긴

안내판과 길이고, 하나는 법왕사 가는 바위에 새겨진 안내판과 길이 있다.

법왕사는 바위 밑에 자리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 ‘천연동굴 법왕사’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24시간 개방 소원성취 기도 도량 천연동굴 안내판을 볼 수 있다. 천연동굴이 있다는 말이 신기해서 들어가 보니 바위 밑에 동굴로 들어가는 나무문이 있고 내부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자동으로 불이 켜져서 내부를 볼 수 있는데 바위에 새겨진 부처 입상과 소원을 비는 단이 있다. 천연동굴을 잠시 구경하고 나와서 옆길로 올라가면 나무 계단이 보이고

75계단 정도 올라가 삼태리 마애여래입상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입상이 조성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삼태리 마애여래입상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만들어진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태학산 자연휴양림에는 오토캠핑장과 숲속의 집이 있는데, ‘태학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캠핑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 태학산 자연휴양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녹음이 짙은 요즘 다양한 식물을 보며 힐링하는 여행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천 호 지

버스커버스커 〈꽃송이가〉 속 천안



벚꽃줍비, 매년 벚꽃이 필 즈음 버스커버스커의 노래가 음원차트에 등장하여 줌비처럼 계속해서 살아난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길거리에서 버스커버스커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벚꽃축제에서 들려오는 노래는 단연 〈꽃송이가〉와 〈벚꽃엔딩〉이다.

이렇게 유명한 노래를 장범준(버스커버스커의 보컬이자 모든 노래를 작사·작곡함)은 어떤 영감을 받아 만들었을까. 널리 알려진 이유에는 바로 충청남도 천안이 있다. 그래서 〈꽃송이가〉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 그곳을 소개하려 한다.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

래 피었네”

〈꽃송이가〉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단대 호수가 바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에 위치한 천호지다. 천호지는 천안 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로 만들었으나 현재는 천안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다. 천호지의 둘레길을 따라 마라톤 코스, 분수, 현수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개나리, 벚꽃 등이 피어 경관이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호수에 잠겨있는 연꽃, 나무들이 철새들의 휴식처가 되어주기도 한다. 천안12경 중 제12경으로 선정되었던 천호지 야경이 현재는 천안8경으로 줄어들며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아름답다.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 잔 하자고 불



러 동네 한 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호수 공원 주변에는 5개의 대학교(단국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운동하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범준은 상명대학교 출신으로 자연스레 천호지 둘레길을 걸으면서 맛있는 거 먹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단대 호수 걷자고, 베드민턴 치자고, 커피 한잔 하자고,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셨던 것 같다.

“거리에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에 사람들 그래 나는 네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6월 24일, 오랜만에 단대 호수를 걷자고 꼬셔 나가보았다. 둘레길을 따라 걸으면서 만난 사람은 고작 다섯 명, 무더운 날씨 탓인지 대학생들의 1학기가 마무리된 탓인지 여태껏 와본 중 사람이 가장 적었다. 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을 보려고 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고요한 천호지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다.



거음이 있었다.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코스를 따라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다. 뜨거운 햇살은 양산으로도 가려지지 않았고 미니 선풍기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나왔지만 땀 뚫린 시야로 들어오는 호수와 높은 하늘, 푸른 식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만들어주었다. 웰빙 마라톤 코스가 조성되어 바닥에는 거리(km)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애완동물과 동반 산책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동물 발바닥 모양도 함께 그려져 절로 웃음이 나왔다. 천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봄에는 노란 개나리와 분홍의 벚꽃, 여름에는 푸르른 연꽃과 줄 지어가는 오리, 가을에는 울긋 불긋 단풍과 파닥거리는 물고기, 겨울에는 눈 쌓인 흰 호수.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는 천호지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해 천안을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수교를 지나면 수달 서식지 안내판이 있는데 수달을 보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인 것 같아 더욱 간절하게 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그늘 속에서 잠시 더위를 식혔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자 흐드러진 연잎과 군데군데 피어있는 연꽃을 만났다. 연꽃의 고귀함에 취해 걷다보면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천호지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배드민턴 라켓을 챙겨올걸,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타는 목을 잠재우기 위해 카페가 줄지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수뷰를 자랑하는 다양한 카페가 있어 천호지에 방문한다면 한 번쯤 들러 맛있는 음료와 아름다운 경관을 함께 음미해보는 것이 어떨까.



순교자들의 기록과 기억을 남긴 여운을 주는 곳 천주교황새바위 순교성지



뜨겁다 못해 타버릴 듯한 햇빛 때문에 외출하는 것을 한참이나 망설이게 된다. 역시 차 안도 후끈하다 못해 숨이 턱턱 막혔다. ‘으아, 덥다 더워!’를 속으로 몇 번이나 외치며 갔는지 모른다.

공주토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천주교황새바위순교성지(이하 황새바위 성지)를 처음 가 보았다. 물론 가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억하는 추억 속 시간들에서 황새바위에 관한 기억은 없다. 그늘을 찾아 주차를 한 내게 이곳의 첫인상은 울창한 나무로 뒤덮여 속을 알 수 없는 공간이다. 아니, 이곳을 색깔로 표현하자

면 초록 초록한, 초록스러운 장소였다. 아픔이 없어 보이는 이 싱그러운 초록한 장소에 어떤 사연이 있기에 가톨릭교단의 성지로 알려지고 2015년엔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주는 내포와 더불어 천주교 전파가 가장 활발했던 곳인데다가 조선시대의 공주는 죄수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던 관찰사와 감영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충청도 각 지방뿐 아니라 때로는 타지역에서 잡힌 천주학 신자들이 자기 지방에서 일차적으로 심문과 고문을 받고도 배교를 하지 않았을 때 공



주감영으로 이송되어 또다시 지독한 고문과 회유로 배교할 것을 강요당했고, 그래도 배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감사의 명에 따라 참수에 처해졌던 것이다. 이런 사유로 공주는 가톨릭교단의 성지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의 ‘황새바위 성지’이다.

‘황새바위 성지’라는 지명은 사형이 결정된 죄수들을 이 바위에서 처형하게 되는데 형장 근처 바위 위에 소나무가 밑으로 늘어진 곳에 황새가 서식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황새바위’라 했다는 말도 전한다. 이것은 죄인들

있고, 공주중학교 또한 건너편에 위치하여 있어 봉황동 일대와 금강은 물론, 멀리는 신관까



지 내려다 볼 수 있다. 지금은 푸르고 싱그러운 장소가 옛날의 누군가에게는 새빨간 아픔의 장소일거라는 생각에 절로 숙연해졌다.

황새바위 성지는 십자가의 길과 명상의 길이 조성되어 있다. 갈린 두 길은 언덕의 순교 광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순교광장에 가까워질수록 특이한 형상의 돌 입구가 보인다. 입구 너머로 광장에는 순교탑과 무덤경당 그리고 12사도를 상징하는 돌기둥이 나오고 그 뒤로 순교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빛돌이 세워져 있다. 다듬어지지 않은 채 놓여있는 12개의 돌기둥을 보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의 12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났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돌기둥은 ‘열두 개의 빛돌’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없이 그리



이 목에 황새(목에 찌우는 칼)를 차고 바위 앞에 끌려가 처형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입구에 세워진 예수 성심상을 지나 계단을 조금만 오르면 바로 건너편에 공산성을 마주보고



스도를 증거한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비석이라고 했다.

광장 뒤로 황새광장으로 오르는 길 옆 곳곳에 화사한 꽃들을 구경하며 순교성지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했다. 이름 모를 꽃에 시선을 빼앗겨 오르다 본 황새광장은 절로 탄성이 나오는 장소였다. 수년 전 그들의 순교를 알아주는 듯 푸른 나무들과 잔디 그리고 쨍쨍한 빛이 비추는 이곳은 성스럽고 신비한 장소였다. 큰 나무 아래에 줄지어져 놓여있는 제각각의 십자가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곳은 최상순 비오신부가 리투아니아에서 본 것을 국내에서 재현한 곳으로 성지순례 할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서 기도를 바치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수년 전의 사람들이 걸었을 그 길을 거닐면서 그들이 보았을 풍경을 보고, 그들의 흔적이 남은 장소를 거닐었다. 누군가에게는 순례의 길 이 되어주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힐링의 장소가 되는 이곳이 참 좋다.



바다가 보이는 찻집 순교 신앙 정신을 생각하며

갈매못 순교 성지는 1866년 병인박해 때 다블뤼 안토니오 주교, 오메르트 베드로 신부, 위앵 루카 신부, 황석두 루카, 장주기 요셉 등 다섯 명의 성인과 이름 모를 수많은 교우들이 순교한 바닷가로 한국 교회의 순교사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곳이다.

사실 이들은 서울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선 왕실이 경사를 앞두고 있어 서울 인근에서 피를 보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멀리 보령 갈매못으로 보내 처형하게 하였다.

1866년 3월 23일 군문효수형을 선고 받고 충청수영으로 이송되어 장교청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3월 30일 술재고개(현 솟재고개)를 넘어 충청수영에서 약 10여리 떨어진 근처의 바닷가 모래사장 갈마진두(현 갈매못 순교성

지)로 가서 순교하였다.

이런 신앙의 역사가 깊은 곳이 보령에 있다.

충청수영을 지나 바다를 보며 잠깐 달리면 된다. 바다를 향해 짧은 감탄이 끝나면 왼쪽으로 갈매못 순교성지가 있다. 봄은 벚꽃길로, 여름은 시원한 나무 터널로, 가을은 낙엽길로, 겨울은 눈을 보며 따라가면 된다.

넓다란 마당이 있는 순교자 기념 성당이 있다. 삶과 거룩한 죽음을 생각하게 만든다. 순교자들의 아름다운 말들을 새기며 가슴 뭉클한 시간을 가져봄도 좋다. 아주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보령의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산 밑의 완만한 순례자의 길을 따라가다보면 미사를 드리는 성당 바로 밑에 순례자들을 위한 휴식처가 있다. 그래서 찻집 이름도 없



다. 순례자의 길은 예수님의 수난의 길을 조각해 세운 담벼락과 걷는다. 계단이 아니기에 누구든 쉽게 오를 수 있다. 오르다가 뒤를 보면 바다가 환히 보인다. 그렇게 오른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왼쪽으로 숲에 둘러싸인 성당이 있다. 이 성당은 계단으로 오르면 된다. 그러면 자그마한 야외 공간도 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산책하기에 좋다. 나누는 이야기는 굳이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저 걷기만 해도 된다. 세상을 만드신 그 분의 사랑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안다면 그것으로 산책은 행복한 것이다.

그 찻집은 성당 신자들과 성지 순례객들을 위해 휴식 공간으로 열었다.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소문 난 찻집이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찻집을 처음 열고 몇 해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하며 손질을 마치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찻집 마당가의 작고 야트막한 몇 개의 계단을 오르면 양옆으로 계절의 꽃들이 인사를 한다.

바다가 계속 보이다가 어느 순간 숨바꼭질을 한다. 바다가 다 보이지 않는다면 순례자의 길을 오르기 전에 기념관 마당에서 실컷 보고 올라오면 된다. 또한 길을 오르다 담벼락에 살짝 기대고 바다를 보면 된다. 한 계단 훌쩍 내려서면 많은 인원을 위한 나무 데크 마당도 있다. 물론 비가림막이 수동으로 설치되어 있다. 사계절을 감상하기에 딱 좋다.

찻집에서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친절한 바리스타의 상냥한 인사도 좋다.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대추차가 맛이 있다. 여름의 메뉴로 얼음을 갈아서 우유를 넣은 본래의 팔빙수를 먹기도 한다. 변함없이 커피는 메뉴에 있다. 사계절 상관없이 언제나 가면 된다.(단 월요일은 휴무) 또한 늦은 밤엔 운영하지 않는다. 마음의 다짐을 위해 기념 성당도 돌아보고 앞이 탁 트인 찻집에 앉아 담소 나누던 때가 그립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꽃 피울 시간을 또 만들어야겠다.



아산의 아름다운 사찰 봉곡사

아산의 송악면 봉수산 자락에는 울창한 숲이 보듬고 있는 고찰 봉곡사가 다소곳하게 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신라 진성왕 1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고 있으며, 증창을 거치다가 정유재란 때 모두 전소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후 인조 24년에 재건하여 오늘날까지 법음을 전파하고 있는 봉곡사는 아산시에 있는 몇몇 전통사찰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도 유서 깊은 사찰로 자리한다.

봉곡사는 규모가 커서 전각이 가득 들어선 대찰은 아니다. 그러나 선현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도 수려한 산세와 아름다리 숲의 주변경관이 매우 탁월하여 종교를 떠나 아산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보석 같은 절이다. 봉곡사는 수많은 스님들의 수도처로 각광받았는데, 특히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었고 일제강점기 때 전통의 한

국불교에 대한 말살정책에 분연히 맞섰던 만공(1871~1946)이 득도한 사찰이다. 만공스님은 그 후 공주 마곡사와 예산 수덕사에 주석하면서 흐트러지던 불교문화의 정체성에 중심을 잡아 오늘의 한국불교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에도 봉곡사에는 만공스님의 오도송과 함께 8.15 해방에 임하여 무궁화꽃으로 써 내려간 세계일화(世界一花) 문구가 새겨진 만공탑이 봉안되어 있다. 세계일화는 이 세상 모든사람, 모든존재, 모든나라,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라는 의미를 지닌 만공스님의 사상이 응축되어 있어 오늘날에도 그 빛을 발하고 있다.

한편, 조선후기 정신문화의 큰 스승이었던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은 청양의 금정도찰방으로 잠시 봉직하였던 시절에 아산의 봉곡사와도 인연이 닿았다.

선생의 스승이었던 성호 이익의 종손이었던



이삼환을 비롯하여 아산지역의 유학자와 더불어 13명이 봉곡사에서 1795년 10월 26일부터 열흘에 걸쳐 이익의 문집을 정리하는 강학회를 열었다. 다산과 함께한 이들은 [서암강학기]를 남겨 스승의 유교적 가르침을 집대성하였는데, 유학자들의 모임장소가 불교사찰 봉곡사였다는 점에서 다산 선생의 포용성있는 대학자적 기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봉곡사는 그 역사성만큼이나 다양한 불교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다.

조선시대에 조성한 목조 석가여래좌상은 모든 중생을 다 품어줄 듯 후덕한 표정과 미소가 그윽하고, 화려한 조각기법이 눈길을 잡는 문수보살상은 훌륭한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영험한 일화를 간직한 불화 세 점을 비롯하여 매우 독특한 조형양식을 띄는 창고건물 고방은 건축학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어 사찰 곳곳이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와 다름없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많은 방문객들로부터 탄성을 자아내는 봉곡사의 핵심은 사찰권역 자체보다도 봉곡사에 진입하는 길에서 보여주는 치명적인 매력 때문이다.

‘천년의 숲’이라 일컬어지는 600m가량의 숲 길은 국내에서도 아름다운 숲길로 꼽히고 있다. 아름답디 소나무와 더불어 길안내를 자처하는 피꼬리소리를 버무리는 발걸음은 그야말로 별천지가 바로 여기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봉곡사에 오르는 길은 울창한 숲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호사를 누리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을 간직하고 있다. 구불구불한 소나무를 가까이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말엽에 태평양전쟁에 소용될 항공유를 제작하기 위해 조선의 소나무로부터 강제로 송진을 채취한 상흔이 깊게 파여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강토의 나무에 상처를 내야 했던 고충과 일제의 패악질의 역사가 숨길 수



“
 첩첩히 싸인 봉수산은 높고
 울창한 숲과 골짜기는 깊으니
 그윽함과 오묘함이 참 재미있는 곳이다.”

없이 드러난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이면에는 진땀
 물과 가시의 날카로움을 감내해야 한다.

봉곡사와 천년의 숲길은 단순히 아름다운 힐
 링의 공간을 넘어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가
 담겨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그곳은 우리 자녀들에게 감추기보다는 옛일은
 상기시키고 결의를 다질만한 무언의 교육장이
 되어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봉곡사를 다녀가면서 다
 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다.

‘첩첩히 싸인 봉수산은 높고 울창한 숲과 골
 짜기는 깊으니 그윽함과 오묘함이 참 재미있는
 곳이다.’

수백 년 전의 지성인이 보는 감상은 오늘날의
 우리가 느끼는 바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관광의 명소

강경옥녀봉



논산시 강경을 북옥리에 위치한 옥녀봉은 풍광이 아름답고 역사문화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으로 논산 8경의 하나였으며, 옛 이름은 강경산이다. 강경 북쪽에 위치한 해발 43m의 도상구릉이다. 기반은 화강암이 풍화된 상태로 지표에 노출되어 있다. 화강암 기반암체는 토어(tor), 바위 가마솥 등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금강이 흐르는 강 언덕에 자리한 옥녀봉은 예로부터 풍치가 아름답고, 그 산성에는 승운정乘雲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봉우리가 매우 수려하여 마치 옥녀玉女가 단정히 앉아 있는 모양이라고 하며 옥녀에 대한 전설이 서려있다. 산 아래는 금강이 흐르는 강경포구가 있었으며 산 위에는 봉수대 또는 봉화대가 있었다. 이곳 강경 옥녀봉 봉화대는 익산 용안면 광두원산에서 봉수 받아 황화산성, 노성산성을 거쳐 공주 월성산 봉수대로 연결했다. 옥녀봉 정상에 오르



면 사면이 확 트여 강경읍내와 굽이쳐 흐르는 금강, 성동, 부여 세도, 익산 용안 등 황금 들녘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석양에는 용안 광두원산에 걸린 붉은 노을이 금강에 잠겨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보는 이들은 하늘의 조화라고 탄성을 자아낸다. 새벽에 피어나는 물안개는 강과 달빛과 각종 물새들이 한데 어우러진 금강의 월경과 노을을 볼 수 있다.

옥녀봉 산 아래로 흐르는 명경 같은 맑은 물에 물고기가 노니는 것도 조약돌도 손에 잡힐 듯했으며, 숲이 우거지고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넓은 들판은 풍요로웠다. 옥녀봉 정상에는 봉화대를 비롯하여 산주汕住(물고기가 자맥질하며 노는 모습), 영포대影泡臺(금강물이 바위 부딪힌 포말 사람 모양의 형용, 그림자) 위 용대爲容臺(얼굴 모양) 잠영대蘸影臺(금강물에 비친 아름다움, 옥녀가 보던 거울이 변함) 해조

문解潮文(밀물과 썰물의 생성과 드나드는 이치와 초하루에서 그믐까지 물때 변화 등을 해설한 글), 산신山神 등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옥녀봉하면 전설을 빼놓을 수 없다. 옥녀봉 전설은 풍광이 너무도 아름다워 하늘에서 선녀들이 달 밝은 보름날 밤에 하늘에서 내려와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고, 명경같이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 놀았다. 이 소문이 하늘나라에까지 알려져 옥황상제 딸 공주도 옥황상제 허락을 받고 이곳에 내려왔다. 공주는 선녀들과 물속에 몸을 담그고 휘영청 달 밝은 밤 명경지수 같은 금강에 물고기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빼앗겨 승천하라는 것도 잊고 있었다. 옥황상제가 진노하여 올라오라고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소리를 듣고 선녀들은 급히 옷을 입고 하늘로 향했다. 옥황상제 딸 공주는 어찌나 급했던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다. 한쪽 가슴을 내보

인 채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본 옥황상제는 가슴을 내놓고 올라오는 자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서 살도록 땅에 떨어 드렸다. 선녀는 옥황상제께 용서를 빌었으나 하늘나라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을 옥녀玉女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옥녀 앞에 거울이 떨어졌다. 그 거울은 하늘나라와 옥황상제 모습도 보이고 시녀들도 보였다. 날마다 그 거울만 보다가 옥녀는 끝내 승천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었다. 동그랗게 묘처럼 봉우리 진 곳을 ‘옥녀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옥녀가 들여다보던 거울은 바위로 변하여 잠영대가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경옥녀봉에서 1896년 충청에서 개신교 최초 침례교회가 들어왔다. 1919년 강경 3·1 독립만세운동 함성이 메아리쳤다. 신사 참배 거부, 일본 역사 수업 거부 등 민족정신의 정신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강경 옥녀봉이다. 또한 근래 옥녀봉 아래 소금박물관이 세워져 박범신 작가 전시관 등 문학의 전당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금강 변에 위치한 옥녀봉은 기독교 순례 코스이며 KBS ‘정 때문에’ 등 드라마 촬영장으로 관광의 명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인생샷’

핫플레이스 장고항 노적봉과 해식동굴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장고항은 지역의 대표적인 어촌마을로 예로부터 어업이 활발히 이뤄져온 곳이다. 그 지형이 장고의 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장고목’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장고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장고항 초입에는 ‘장

고항 실치마을’이라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매년 4월경이 되면 이곳에서 잡히는 싱싱한 실치를 맛있는 회와 국으로 맛볼 수 있다. 시즌 한정으로 먹을 수 있기에 장고항은 ‘실치축제’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는 곳이기도 하





다.

당진시에서는 장고항을 해상교통, 관광 및 유통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어항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20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고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2015년부터 방파제, 소형선 부두 및 선양장 등 접안시설과 수산·어항 기반 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 현재 전과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를 통해 장고항은 서해안의 허브 어항으로서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장고항에 또 다른 핫 이슈가 생겼다. 바로 노적봉과 해식동굴이 MZ 세대를 통해 ‘인생샷’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것. 당진은 ‘해뜨고 지는 마을’인 왜목 마을이 유명한데 왜목마을이 유명해진 데에는 한 장의 사진이 큰 역할을 했다. 바로 뽕쪽 솟은 봉우리 위로 동그란 해가 떠오르고 있는 사진으로 이 사진에 나오는 봉우리가 바로 노적봉이다. 노적봉은 왜목마을에서 장고항을 바라보면 있고 장고항에 위치한 당진 시수산물유통센터 바로 옆에 있다.

노적봉에 물이 빠졌을 때 봉우리 옆으로 난 계단을 통해 촛대바위 사이로 돌아가면 자연이 만든 기암괴석과 해식동굴을 만날 수 있다. 해식동굴의 천정은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를 통해 용이 승천했다고 하여 ‘용천굴’로 불리기도 한다. 깊지 않은 동굴이지만 풍경이 신비하고 멋스러워 요즘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단, 해식동굴은 바닷물이 빠져야 들어갈 수 있어 물때를 잘 맞춰야 볼 수 있으며 해식동굴을 관람할 때는 낙석, 해안 월파 등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적봉 촛대바위 둘레로 데크길이 만들어져 있고 조명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는 더욱 멋스러운 경관을 볼 수 있다.

노적봉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들이 쳐들어오자 노적봉에 가마니를 쌓아 노적가리처럼 보이게 위장하여 적들이 달아났다는 전설이, 해식동굴은 어린 동자와 마을 원님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서천 치유의 숲



급변하는 세상에서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며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고, 보다 균형 잡히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간구하게 되고 있다.

서천에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심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서천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다. 서천치유의 숲은 문수산과 희리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도모하는 치유공간이다.



서천 치유의 숲은 충남 서천군 중천면 중천리 산1-1번지 일원의 면적 55ha로에 달하는 지역으로, 곰솔이 우점하는 가운데 다양한 활엽수림이 분포하고, 치유센터와 대나무 소리쉼터, 수변 명상숲, 하늬바람, 풍욕장 등과 황토숲길, 소나무 명상 숲길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인접한 주변 도시와 국립생태원을 연계한 광역 시티투어 운영과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포함한 각종 축제와 풍부한 제철 먹거리를 연계한 메가시티투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항상 기대되고 다시 찾고 싶은 서천관광을 위해 시티투어를 업그레이드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천군만의 차별화된 산림치유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국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어내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등산 활동 및 숲에서 휴양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숲의 치유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숲은 건강과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숲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질병의 완화 및 예방 기능이 있는 것이 규명되면서 숲이 주는 심리적, 신체적인 치유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변으로 조성된 산책로를 포함한 다양한 식생의 숲길과 산림교육 및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탐방객들에게 숲이 주는 풍요로운 혜택과 마음의 안정 등 건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산림복지서비스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2021년 3월 개관을 시작으로 심신의 회복과 휴양, 건강증진 등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대상자별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아동에게는 쾌적한 자연환경 제공으로 면역력 증진과 행복한 유년을 만들어 주는 자연놀이터를 활용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스스로 참여해 웃음과 성장을 만들어 가는

자기개발의 기회제공을 한다. 직장인들에게는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체력증진 기능의 장, 변화와 성장을 위한 소통공간의 장으로, 어르신들에게는 고령화 사회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 중심의 산림복지 서비스 역할을, 관광객에게는 서천의 해양관광 문화자원과 연계한 힐링 관광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치유 패러다임을, 장애인에게는 오감 활동을 통한 신체적 기능 활성화로 통합적 감각 기능의 회복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프로그램은 인근에 있는 자연환경인 계곡과, 테크로드, 호수와 소나무림의 산책로 등 현장 활용이 가능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인체 고유진동과 조화를 이루어 심신의 회복과 치유를 도와주는 싱잉볼 명상과, 소리수련을 통한 심폐기능 활성화와 기혈순환 프로그램, 통나무명상해독제조, 지역 특산품인 모시를 활용한 티테라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족욕, 아로마테라피, 맨발걷기, 햇살명상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자연스러운 정신과 심리 안정이 필요하다면 서천치유의 숲에 방문하길 추천한다.



새로운 관광명소 남당항

뛰어난 경관과 풍부한 먹거리로 사계절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홍성의 남당항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홍성군은 남당항 일원에 55,000㎡ 규모의 해양공원을 조성하고 음악분수를 설치, 시험가동을 마친 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 운전에 들어간 주말에만 1천명이 넘게 찾아오는 등 벌써부터 인기 폭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여름철은 그동안 남당리 새조개, 바다송어, 대하 등의 별미를 찾아 다니던 관광객들의 비수기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전국 최대규모의 물놀이형 음악분수와 대규모 광장 등이 설치됨으로써 비수기인 여름철의 관광수요를 극복할 수 있는 대형행사의 개최 및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천수만을 바라보며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해안지역 최초의 넷어드벤처 시설도 7월 중순부터 가동되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인생 사진을 연출할 수 있는 트릭아트존, 포토존, 산책로, 각종 편의시설 등 다양한 매력으로 채워져 새로운 힐링명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추후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관광도로 조성 등 총 사업비 70억을 투입해 24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서부해안으로 탈바꿈하고, 천수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먹거리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남당리 본연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리며 20~30대의 젊은 연인들과 40~60대의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명품항으로 거듭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홍성의 대표적인 관광지 '홍성 12경'에는 이미 남당항이 '제2경'으로 선정되었고, 남당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죽도'가 '제5경', 홍성의 서해의 명품 낙조가 '제6경'에 지정되어있다. 인근의 한용운선생 생가지, 김좌진장군 생가지도 각각 '제7경' '제8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



면 남당항 인근이야말로 홍성의 핵심적인 관광 명소임이 분명해진다.

남당리에는 놀고 먹는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이, 송시열, 권상하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학풍을 이어받아 기호유학을 집대성한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을 배출한 유서깊은 곳이기도 하다. 한원진은 '조선의 3대 논쟁중 하나인 호락논쟁(湖洛論爭, 인성과 물성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이끌었던 인물로 남당학파를 이루었으며 그의 사상은 후대로 이어져 지산 김복한과 이설, 만해 한용운, 백야 김좌진 등 수많은 충절 위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인근에는 그의 묘소가 있으며 현재 청운대학교에는 '남당학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홍성의 남당항 일원은 이처럼 다양한 역사문화,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충분히 '무장'된 곳이다.

남당항을 중심으로 정면에는 죽도, 왼편으로는 풍력발전기가 있는 모산도, 오른쪽에는 새롭게 조성된 '스카이 워크'와 '스카이 타워'가 오늘도 여러분의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자연인이
가꾼
자연,

천리
포수
목원



“ 첫눈에 들어온 것은 아침 햇살에 빛나는 두 채의 기와집이었다.
집주인의 입에서 신음 비슷한 탄성이 나왔다.
“아, 저 한옥 너무 예뻐요!”

임준수의 『민병갈, 나무 심은 사람』 중에서, 2021

민병갈이 탄성을 보낸 1970년 6월 21일, 천리포수목원의 설립일이 되었고 그 집은 직원들에게 ‘본부’로 불렸다.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등록된 천리포수목원을 탐방할 때면 설립자 ‘칼 페리스 밀러

(민병갈)’를 짓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자연을 사랑했으며 사랑한 만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민병갈 박사. ‘밀러가든’을 탐방하면 그가 추구했던 아름다운 자연미와 그 안에 감싸진 듯,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어 설립자가 걸어



온 발자취가 느껴진다. 그가 처음 우리나라 산의 경관에서 받은 감탄과 정감을 우리는 이수목원을 거닐며 공감하게 될 것이다.

차들로 꽉 찬 주차장을 벗어나 친절하게 반기는 안내소를 지나면 커다란 해송 아래 그늘바람이 개운하게 우리를 맞이한다. 그 길 이어 돌계단으로 내려가면 큰 연못이 나오는데 이 연못은 1972년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삽으로 판흙을 지게로 날라 조성한 인공연못이다. 수련 사이로 오리들이 잔잔하게 흐르는 커다란 연못을 보니 당시 직원들의 노고와 대단함이 느껴진다. 용수 해결로 연못 주변 식물들은 넉넉한 수분을 섭취하며 자라, 땅 위로 뻗은 낙우송의 뿌리같이 신비롭고 주변에 낮게 깔린 수선화처럼 싱그럽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시선을 맞추고 걸으면 그 눈길은 어느새 설립자 민병갈 박사

와 마주한다. 민병갈 홍상이 자리한 ‘민병갈 추모정원’은 2022년, 탄신 100주년과 서거 20주기를 기념하여 새롭게 단장했다고 한다. ‘내가 문힐 자리에 나무를 심으라’라는 설립자의 유지대로 서거 10주기에 6월이면 아름답게 흰 꽃을 피우는 태산목 아래 옮겨 모셔졌다. 은은한 꽃향이 스쳐 고개를 들면 윤광이 돋보이는 태산목 앞에 햇살이 반짝인다. 생전에 나무를 사랑한 민병갈 박사의 모습이 이러했을까. 상념에 잠겨 인사를 하고 발길을 돌린다. 추모정원에는 ‘완도호랑가시나무’가 심겨 있는데 민병갈 박사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 하나라고 한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민병갈 박사가 완도에서 처음 발견한 나무로 이름도 완도호랑가시나무 ‘밀리’이다. 천리포수목원은 주요 5속 식물 중 하나인 호랑가시나무를 565분류군 보유(2021년 기준)

천리포수목원



하고 있으며 이외 목련, 동백나무, 단풍나무, 무궁화 포함 총 16,882분류군으로 국내 최다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4월이면 다양한 품종의 목련이 만개한다. 이에 맞춰 수목원은 목련을 가까이 감상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탐방객을 위한 목련 축제를 개최한다. 기간 중 '가드너와 함께 걷는 비밀의 정원 탐방'은 인기 프로그램으로 평소에 보기 어려운 비공개 지역에서 가드너의 해설과 우아하게 피어난 수많은 목련을 보며 정말 비밀스러운 정원에 초대받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 가장 추천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또한, 더위가 무르익은 8월이면 무궁화 축제가 열린다. 수목원 내 관리지역 중 하나인 '무궁화동산'과 '무궁화품종보전원'을 방문하면 놀라움의 연속으로 눈 깜박일 시간이 없다. 우리는 붉은 단심에 흰 꽃잎을 가진 무궁화로 흔히 알

고 있는데 이곳에서 만난 무궁화는 다양한 색과 모양을 지닌 품종이 많아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천리포수목원에는 또 다른 특별한 장소가 있다. 수목원 왼쪽 데크길을 따라 걸으면 탁 트인 천리포 바다가 모습을 드러낸다. 살며시 부는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고 청량한 바다를 한참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보다 더 좋은 휴양지가 있을까 싶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천리포수목원에 섬이 있다는 것이다. 푸른 바다 위에 부드러운 능선을 뿜내며 떠 있는 '낭새섬'이 그것인데 관리지역 중 하나인 이 섬에 가려면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를 기다려야 한다. 드러난 바닷길을 두 발로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 또한 색다른 경험일 것이다.

등산하다 힘에 겨우면 큰 나무 그늘에 쉬어간다. 자연은 우리에게 쉬라 말한다.

주제 전시원 중에는 우거진 큰 교목들이 모여 은은하게 하늘을 가려주며 숨을 돌리게 하는 ‘우드랜드’가 있다. 나무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고요하게 내 숨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치유의 공간으로 제격이다. 그래서인지 동상이지만 설립자 민병갈 박사도 편안한 자세로 벤치에 앉아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신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큰 유리온실이 보인다. 유리온실의 명칭은 ‘멸종위기식물 전시온실’이다. 천리

포수목원은 식물을 가꾸고 전시할 뿐만 아니라 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기관이다. 국내외 희귀·멸종위기식물 보존을 위해 수집·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토종식물을 지키고 기록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로 뛰고 있다. 어느 한군데 손길이 닿지 않는, 관심 두지 않는 곳 없이 세심하게 설립자의 유산을 지키고 있는 천리포수목원의 긍지를 느낄 수 있다. 설립자 민병갈의 식물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수목원과 그 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생명 보전을 위해 50여 년 그 자리를 지켜온 천리포수목원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지킨 자연을 만끽하길 바라본다.

보령문화원 / 관찰사 신억 영세불망비는 어디로 갔는가?

황의천 / 보령 향토사학자



〈2023년 5월 웅천읍에서 정비한 두룡리 비석군〉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국도 21호 도로변에는 조선 후기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웅천 대천리 지역에 산재 되어 세워진 비석들을 한데 모아 보존하는 비석군(碑石群)이 있다. 웅천 대천리는 조선 후기부터 남포대천장이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 여러 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석공업 발달 도로 개설 등 개발과정에서 유실될 위험에 노출되어 1999년 웅천읍(읍장 임근혁)에서 현재의 위치에 이전하고 모아서 보존해 오고 있었다.

이 또한 30여년이 지나면서 기울어짐이나 주변 환경변화로 비석군의 경관이 훼손되어 2023년 5월 웅천읍(읍장 황의승)에서는 예산을 들여 1999년 미처 모으지 못했던 대천리 정

자나무 아래의 현감 정상박 비석과 관찰사 송정명 비석을 옮기고 다시 정비를 하게 되었다.

정비를 하면서 비석을 세워진 연대순으로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1개의 비석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관찰사 신억 영세불망비(觀察使申億永世不忘碑)였다.

이 비석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2010년 보령문화원에서 발행한 『보령의 금석문』이다. 관찰사 신억 영세불망비는 보령의 금석문 사업 당시 사진 촬영과 탁본까지 되었던 비석인데, 이번에 연대순 정비를 하면서 대조해 보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역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보령의 금석문과 같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정리 기록하

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일깨워주는 일이었다.

도로변에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몰래 위치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2010년 이후에 누군가가 연마하여 비석돌로 재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는지, 아니면 후손이 기념 보존하기 위해 가져갔는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는 후손이나 다른 사람들이 없애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두룡리 비석군에는 21기의 비석이 있는데, 이 중에서 관찰사 박제순 비, 김제동 비, 현감 이경간 비 그리고 남포오석의 개발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현감 정삼박 비 등은 보령 향토사 이해를 위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주목해 볼 수 있는 비석들이다. 어찌되었건 여기 있는 21기의 비석들은 보령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기 때문이다. 무관심 속에 더 이상 분실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신억(申億, 1805~1874)은 본관이 평산으로, 조선후기 공충도 관찰사 공조판서를 역임한 문신이다. 1864년부터 1867년까지 3년간 충청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864년 신억은 조정에 장계를 올려 남포현감 유방주(俞邦柱)가 청렴하고 명철하게 정사를 잘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애석해 하니, 특별히 유임시켜 달라고 하여 그를 특별히 유임시키고, 표장받도록 하였다. 1866년 관찰사 임기 만료가 되었으나 정성을 다하여 궁벽한 곳의 백성들을 살어나

게 하여 백성들이 그를 유임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조정의 의견으로 특별히 1년을 유임하게 되었다. 공주 공산성 아래에도 송덕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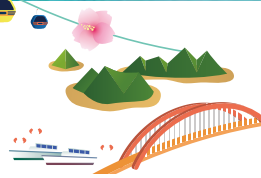
없어진 신억 영세불망비는 1867년 9월에 세워졌는데, 관찰사 임기가 끝난 후 주민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석질은 남포오석이며, 크기는 48cm×135cm×21cm이며, 자경은 대자는 9cm×9cm, 작은 글씨는 4cm×4cm이며, 방형의 비신에 갓석은 없는 상태였다. 전면에 대자로 觀察使申公億永世不忘碑, 전면우측 하단에 작은 글씨로 同治六年丁卯九月日 豎이라 새겨져 있어 1867년에 건립되었음을 보여준다. 후면에 공적을 새긴 음기는 없다.



〈관찰사 신억 영세불망비(2010. 9)〉



통영을 다녀와서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 1박 2일간 충청남도 문화원 연합회가 주관한 충남지방문화원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다녀왔다. 처음으로 가는 워크숍이라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들떠있었지만, 출발장소가 내가 사는 집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안 그래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기에 들뜬 마음을 다잡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져가야 할 물건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다행이도 눈은 예상한 시간에 떠졌고, 전날 직전까지 챙겨야 할 것들을 점검해놔서 집을 나설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었다. 충남에 있는 문화원 직원들이 함께하다 보니 버스와 집합 장소가 두 곳으로 나뉘어졌고, 우리 예산문화원은 충남내

포혁신플랫폼 주차장으로 갔다. 이날 통영에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챙겼다. 가던 도중에 예산에도 장대비가 내렸고, 덕분에 집합장소에도착해 버스를 탈 때까지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었다. 버스에 들어가서 명찰을 받고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먼저 앉아계셨던 다른 문화원분들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출발시간이 되어 앞에서 연합회분이 안내를 하였고 간단한 간식거리를 받은 다음에 버스는 출발했다. 약 4시간이 걸리는 거리라 좀 많이 오래 걸릴 거 같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들어버렸기에 도착은 순식간이었다.

그렇게 도착하고 점심을 먹기전에 들른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박경리기념관이었다. 이 기념관



은 박경리선생 생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당초 충렬사 광장 주변 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무대였던 곳에 건립코자 했으나 갑작스런 타계로 묘소가 이곳 양지농원으로 결정됨으로써 문학관도 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건립하게 되었으며 생전 박경리 선생의 인생관과 문학정신을 살리고, 요란하고 화려함을 싫어한 그의 평소 취향 그대로 소박하고 단순간결하게 건립하였다고 한다. 관람을 끝낸 우리들은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였다.

점심을 먹고 이동한 곳은 전혁림 화백의 그림이 전시되어있는 전혁림 미술관이었다. 이 미술관은 2003년 5월 11일 개관하였다. 전혁림 화백이 30년간 생활해 오던 봉평동 일대의 뒷산을 배경으로 ‘가장 통영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바다의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전통 사찰의 중요 요소인 탑의 형태를 접목하여 건물의 외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외벽은 전혁림 화백의 작품을 도자기 타일에 옮겨 장식했으며, 특히 3층 전시실 외벽은 전혁림 화백의 1998년작 창(Window)이라는 작품을 재구성하여 11종류의 타일 작품을 조합한 가로 10, 세로 3미터의 대형 벽화가 장식되어있었다. 이날 비가 계속 내려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품을 둘러볼 때 파란색이 유독 눈에 많이 띄는 날이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윤이상 기념관이다. 이 기념관은 작곡가 윤이상의 업적을 기리기위해 2010년에 개관했다고 한다. 1917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성장한 윤이상은 1935년 일본 오사카 음악학교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배웠으며, 귀국 후 교사로 재직하면서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1959년 독일 베를린음악대학을 졸업한 이후 그는 쇤베르크 12음계 기법과 우리나라 궁중음악을 결합시킨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을 발표하며 세계 음악계



에서 주목을 받았다. 1967년 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되어 서독으로 추방된 윤이상은 1971년 독일에서 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도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하여 음악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심청’, ‘나비의 미망인’ 등 4편의 오페라와 20여 편의 관현악곡, 40여 편의 실내악곡 등 총 150여 편의 작품을 남겼으며,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다. 관람을 끝낸 우리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버스에 올라탔다.

이번 목적지는 서피랑 공원이다. 아마 내 기억에 첫째날에 이곳에서 가장 많이 걸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 워크숍에서 편하게 걸어나가기 위해 이번에 새 신발을 샀지만 하필 하얀색이 메인인 신발이었고, 이날 통영에 비가 장대비로 계속 내리서 축축하게 젖은 땅에 신발이 더러워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티벳티벳 공원 언덕을 올라갔다. 그렇게 도착한 공원 꼭대기에는 안개가 끼서 통영의 항구를 볼 수는 있었지만 뚜렷하게 볼 수는 없었기에 더욱 안타까웠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청마문학관이다. 청마문학관은 청마 유치환 시인(1908~1967)의 문학정신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2월 14일 4,038㎡의 부지에 문학관(전시관)과 생가(본채, 아래채)를 복원, 망일봉 기슭에 개관하였다 한다. 전시관(51평)에는 청마의 삶을 조명하는 '청마의 생애'편과 생명 추구의 시작을 감상하고 작품의 변천, 평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청마의 작품 세계'편, 청마가 사용하던 유품들과 청마관련 평론, 서적 논문을 정리한 '청마의 발자취'편, '시 감상코너'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마의 유품 100여점과 각종 문헌자료 350여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문학관은 생각보다 높은곳에 있었고, 올라가는 계



단이 판판한 구조가 아닌 커다란 돌들을 쌓아서 만든 형식이라 발을 던기가 좀 힘든 구조였는데 비까지 와서 미끌거려서 오르내릴 때 조심조심 했던 걸로 기억한다. 위에 소개를 하면서 적은 것처럼 정말 많은 책들과 종이가 있었으며, 그것들의 낡음을 보면서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집필을 했을지 생각하고, 이날 둘러본 모든 기념관에 대표하는 이름을 가진 문화인들이 한 분야를 관철하며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임했는지 아주 작은 편린만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존경할만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서피랑 공원 정상에서 얼핏 볼 수 있었던 통영 중앙 시장이다. 바로 근처에 항구가 있어서 그런지 버스에서 내려 시장에 들어가니 전부터 바다 냄새가 났고 시장에 들어서니 각종 해산물의 냄새가 났다. 1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같이 온 문화원 사람과 함께 사무실에서 각자 업무를 하며 고생하고 있을 다른 직원분들을 위해 전해줄 간단한 간식

거리를 사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구경했다. 풍겨오던 해산물 내음 사이로 과일을 판매하는 곳이 있었고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니 카페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 자유시간이 끝나고 다시 집결해서 버스를 탄 다음에 우리는 숙소로 이동했다.

숙소에 도착하고서 각자 지정된 방에 짐을 내려놓고 20~30분 정도 있다가 워크숍을 진행하다 해서 잠시 숙소에 앉아있다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분들과 함께 시간에 맞춰 1층 로비에 있는 홀에 내려갔다. 워크숍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업무흐름도, 사용자지원 이용안내 등 9가지 목차가 있었고,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 워크숍의 끝맺음으로 인상깊은 말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문화원은 이익집단이 아니다. 이념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도 아니다. 스스로 문화적 영역을 구축해 가는 문화 플랫폼이다.



문화전도사를 자칭하는 문화매개자이다.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보라든가, 혹은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는 향토성에 기초한 문화센터이다.”

“모쪼록, 멀리 시대의 흐름을 예견하면서, 문화의 주도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풍토 마련과 독자성 확보를 위한 여건의 개선과 함께 본래 창립 목표였던 문화창달을 위해 헌신적으로 나서는 향토지킴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워크숍을 마치고, 각 문화원에서 새로 입사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해서 이번년도 3월 말에 입사한 나도 앞으로 나갔다. 45명 정도 되는 워크숍 인원에서 나까지 포함해서 약 10명 정도가 앞으로 나왔고, 한명씩 인사를 한 뒤에 기념사진을 찍고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으로 이동했다. 약간의 반주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씻은 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숙소에서 풀었던 짐을 챙기고 나와 나머지 두 가지 일정 중 처음으로 간 곳은 통영 케이블카였다. 비행기나 배 같은 다른 탈것들은 타본 적이 있지만 케이블카는 처음이라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탑승 순서를 기다렸다. TV나 다른 매체에서 보여준 케이블카는 많이 덜컹거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살짝 걱정도 됐지만, 걱정이 무색하게도 약간의 흔들림만 있을 뿐 덜컹거림은 없었다. 정상에 도착하고 그곳에도 카페가 있어서 문화원 직원들끼리 각자 음료와 약간의 간식을 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간의 시간을 보낸 뒤, 내려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내려가서 다음 일정을 향해 버스에 올라탔다.

이번 워크숍의 마지막 일정은 동피랑 마을이다. 전날에 갔던 서피랑 공원이 자연공원 같은 모습이었다면, 이곳 동피랑 마을은 여러 가지 벽화가 조화를 이루는 말 그대로 벽화마을이었



다. 정말로 가지각색의 벽화가 마을의 벽이란 벽에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그것들은 모두 뭐 하나 튀는 것 없이 서로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감탄했던 것을 기억한다. 동피랑 마을의 관광을 끝낸 후 근처의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근처 카페로 가서 돌아갈 버스 시간까지 다른 문화원 분들과 소통했고,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출발할 때와는 다르게 아쉬움에 잠들지 못해 유난히 돌아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다.

마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내가 문화원 직원임을 떠나서라도 우리 지역의 문화인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지금은 업무적인 것을 배워가기에 급급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우리 지역의 문화인들을 알아보며, 언젠가는 이번 워크숍에 들렀던 기념관들처럼 우리 예산에도 그런 문화인의 기념관이 더욱 생기기를 바라며 이만 답사기를 마치겠습니다.

논산문화원/논산의 교육발전사



도서명 : 논산의 교육발전사
저 자 : 권선옥, 김문준, 이병임
 임영선, 오도영, 조한근
 차학순, 한인성, 홍혜순
구 분 : 단행본
장 르 : 역사

— 논산의 교육발전사 —

논산에는 세 곳의 향교와 열세 곳의 서원이 있다. 숫자로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많고 유학의 큰 축이었던 돈암과 노강서원이 있다. 우암 선생은 스승인 사계 선생 가까운 곳에 정자를 짓고 강학했다. 훗날 강경은 스승의 날이 발원되었다. 지난날의 논산 교육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고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 보는 교육사의 정립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이에 조선 시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등 근대사회의 논산 교육을 정립하였다. 유아·초등·중등·고등 교육사 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사진을 수록하였다. 교육사를 연구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이다.

제14·15대 충남문화원연합회 이취임식



3월 3일 오전 11시 충남내포혁신플랫폼 강당에서 열린 충남연합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열렸다.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과 충청도내 15개 문화원장단, 이상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부위원장을 비롯한 1백여 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1부 유환동 회장의 이임식과 2부 이종석 신임 회장의 취임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임 유환동 회장으로부터 연합회기를 인계인수한 이종석 신임 회장은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 겸허한 반성 위에서 새로운 문화를 이루고 확대시키기 위한 활기찬 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 그 주체가 되어 새로운 문화원의 모범으로, 적극적인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가며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김태웅 회장은 축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소통하며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충남연합회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일의 앞에서 경륜과 덕망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이종석 신임 회장에게 큰 기대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신임 이종석 회장은 2012년 천안시서북구문화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역사 발굴과 민속예술 전승, 문화학교 운영 등 향토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일에 전력을 쏟았으며, 지역문화의 창조와 매개, 수용과 소비라는 점에서 그 고리들을 구축하고 진행하는 일이 문화원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지역문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문화원이 자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지킴이로 인정받고 있다.



2023년 충남문화원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



문화원연합회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충남문화원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경상남도 통영 일원에서 진행하였다

지방문화원 임직원 47명을 대상으로 예향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소설가, 시인, 음악가, 화가 등 많은 예술가들을 낳은 통영을 방문하여 문화예술의 산실을 탐방하며 문화예술인의 정신을 기렸다



문화원 현안사항 건의 및 토의 시간을 가졌으며 문화원이 나아갈 길 '시대를 읽는 문화원'에 대한 연합회장님의 말씀과 각 지방문화원 새가족(신규직원)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2023년도부터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프로그램(보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 추진 능력 향상 및 문화원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박경리 기념관, 한국의 피카소,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전혁림을 기리는 미술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기념관, 서피랑, 동피랑 벽화마을 중앙시장, 청마문학관, 강구안길, 이순신 공원등을 탐방하면서 눈과 마음에 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탐방을 진행하였다

2023년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 실무 회의



- 회의일시 : 2023. 6. 23 충남내포혁신플랫폼
- 사업추진일정 논의
- 사업운영
 - 3월~10월 : 사업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지역별 구술채록 진행
 - 11월 : 사업자료 제출 2023.11.17.(금)
구술자 영상자료(시군문화원 자체 보관), 스토리텔링자료제출hwp.파일 (이메일)
 - 12월 : 사업 종료
구술채록 결과 자료집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발간, 사업 완료 및 정산
- 시군별 구술채록 주제 발표
- 채록요령, 녹화요령 및 각종 서식 공유



2023 원장회의

지난 4월 18일 오전 11시 원장회의가 혁신플랫폼에서 열려 상반기 문화사업 전반에 걸친 협의가 이뤄졌고,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임시총회로 열려 운영규정 개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운영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 도내 원장들은 다수의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충남문화』 편집회의



충남문화원연합회 기관지인 『충남문화』 28호 발간에 따른 편집회의가 6월 8일 혁신플랫폼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권선옥 편집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편집 방향과 콘텐츠 구성, 작성 서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고, 새로운 관점의 편집 필요성과 주제를 관통하는 매거진으로서의 문화 정보지를 만들어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2023 어르신문화활동 지원 주관처 관계자 워크숍

충남문화원연합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 국비사업으로 고령시대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어르신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사회적 소속감 및 안정감을 증대하고, 지역 사회에서 주체적 시민으로서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하는 위해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주요내용으로 '2023 지역맞춤형 노인문화활동 지원_충남지역' 수행하게 되었다

충남지역 공모에 의해 문화원과 노인복지관등 12개 수행단체가 선정되었으며 6월 8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1차 선정단체 워크숍이 열렸다. 사업개요 및 주요 일정 안내, 국비사업의 집행기준과 이나라도움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각 선정단체별 사업의 주제와 프로그램 진행 관련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노년의 발견' 저자 윤성희 문학평론가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문

전문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은 도민의 문화 향유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남 도민은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이며, 문화를 누리는 동시에 창조해 내는 존재입니다. 이에 도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 선언을 합니다.

본문

제1조(문화향유접근권)

충남도민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체육 시설과 공간,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조(문화예술교육권)

충남도민은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고 '삶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3조(문화표현자유권)

충남도민은 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창작 활동의 기쁨과 보람을 누려야 합니다.

제4조(문화다양성 보장)

도민과 충청남도는 지역, 연령, 성,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러한 문화가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5조(충남의 문화자원 보전과 활용)

도민과 충청남도 문화시설, 전통문화유산, 문화행사와 축제 등 문화 및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충남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6조(충남 문화공동체 지원)

도민은 문화 창작과 향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고, 충청남도는 이와 같은 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7조(충남의 문화역량 신장)

충청남도는 문화체육시설 확충, 문화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충남의 문화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제8조(문화 협치)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충남의 문화권 실현을 위해 협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문화 협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9조(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에의 참여)

도민은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도는 도민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합니다.

제10조(평가와 의견수렴)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문화정책 수립과 실천,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도민의 평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1조(문화권 신장을 위한 의무)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도민은 문화 활동의 주체이자 주인이 되어야 하며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문화를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제12조(문화격차 해소)

'함께하는 문화' 실현을 위해서 충청남도도와 도민은 서로의 표현과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과 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13조(문화재정 확보)

충청남도도는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이의 신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구체적 실현을 위해 문화재정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충남도민 문화권 선언이 도민의 삶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충남도민 문화권리를 선언합니다.

2020.10.29.

도민대표단 일동

2023 충남문화원 현황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 총면적(m ²)	원장	사무국장	직원	전화/팩스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 210호	87. 02.		회장 이종석	사무처장 이정우	김종호 주혜원	T.635-9102 F.635-9104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 29	58.04.20.	487	김윤식	곽승일	이 슬 최승연	T.564-1022 F.563-1021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3로 7-11	63.05.10.	275	이종석	원 민	문경희 홍승미	T.581-2101 F.582-1725
공주문화원	공주시 대통1길 66(반죽동)	54.12.16.	2,160	이일주	현대수	양문숙 정지은 김선아	T.852-9005 F.856-6746
보령문화원	보령시 대흥로 63	56.03.02	739	황익호	한흥호	김명희 맹충구	T.934-3061 F.936-3071
온양문화원	아산시 남산로 28	57.05.10.	824.2	정종호	김형기	이지운 박현미 박상규 김유진	T.545-2222 F.542-4444
서산문화원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	57.06.15.	1,884	편세환	김영철	김예지 이연주 이미정 이지원 이미래	T.669-5050 F.669-4567
논산문화원	논산시 관촉로 113-16	57.11.14.	1,757	권선옥	이준창	전현희 고승연 김형태 김창숙	T.732-2395 F.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	55.09.01.	1,130	김윤숙	강대원	이아름 차승훈 모선호 김이담	T.354-2367 357-2367 F.356-3850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67.11.18.	1,203	장 호	전병만	김소연 차주희 양가람	T.754-2724 F.754-661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54.03.01.	3,432	정찬국	김인권	이미영 박진수 김미완 문소연	T.835-3318 F.833-3318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8	65.01.26.	4,272	최명규	박은희	정혜옥 고영미	T.953-0123 F.953-0133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55.04.17.	945	임호빈	김홍영	차승원 전미진 신호인	T.943-4774 943-4775 F.944-1030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54.03.31.	2,518	유환동	조남민	김숙희 모태희 이경진	T.632-3613 F.633-1199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55.10.15.	2,530	김종옥	박세진	이충환 이수영 장혜민 조용현 홍성희 정다은 장화수 이다연 박지혜 최유주	T.335-2441 332-2441 F.334-43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	90.06.05.	3,507	고종남	정지수	안은선 조지현 전지현	T.674-2192 F.675-6968



표지사진 보령머드축제

김원희 작가

- 한국프로사진협회 총무위원장

- 사진작가협회 충남사진대전 초대작가

충청남도 문화

2023 No.28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